APR 25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1114~1115 1983년 4월22일(금) & 23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April 22 & 23,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1983 MISS KOREA

한국일보 방문 미녀 후보자들

미인대회를 이를 앞둔 21일, 8명의 미녀후보들이 본 토론토한국일보사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컴퓨터식자기, 윤전기등 본사시설을 돌아보고 "신문제작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면서 감탄했다.

이들은 이날하오부터 한인동부장로교회에서 이광민·전인숙·제니퍼 존스양의 지도로 걷기등의 연습을 시작했다.

사진은 윤전기 앞에선 미녀들. 왼쪽부터 강영주, 박선희, 오미숙, 조경희, 유경희, 이은경, 이석미, 김영미양.

사면개정안 통과

81년 이전입국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워싱턴=외신)미하원 이민관계소위원회는 6일 1981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사항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7대1의 압도적 표차이로 통과시켰다.

한편 상원소위원회도 7일 유사한 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하원이민및 난민소위원회(위원장 로마노·마졸리의원)는 원안의 불법체류자 사면2단계안을 수정, 단일안으로 통과시켰다.

종전의 불법체류자사면안은 1977년1월1일 이전 입국자에게 영주권을, 그리고 1980년1월1일이전 입국자에게는 임시거주권을 부여하는 2단계였으나, 금번 소위원회에서는 이안을 단일화하여 내용을 크게 완하시켰다.

이날 소위원회는 2단계 사면안을 단일화하자는 안에 대하여 5대3으로 우선 통과를 보고난 후, 기준일자를 1981년1월1일이전(1980년 12월31일까지 입국자)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일괄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민법개정안의 제안자인 마졸리위원장은, 하원법사위가 오는 8월 이전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금년회기내 이민법개정안본회의 통과가 힘들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이 84년 미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많은 안건심의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는 불법체류자사면안과 고용주처벌안을 삭제하자는 샘·홀의원(민주당 텍사스)과, 빌·맥콜럼의원(공화당 플로리다)의 수정안을 각각 부결시켰다.

이날 이민소위원회는 개정법안통과를 전제로 한 1984년부터 86년까지의 이민관계추가예산안 4억7천5백90만달러를 통과시켰는데 레이건행정부는 이기간동안 매년 5억3천9백20만달러의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다.

이민법개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는 80대17로 통과를 보았으나 하원은 회기말회의에서 3백여개 수정안으로 통과를 보지못해 폐기되어 금년회기에 재상정된 것이다.

단체대표자 회의소집

온타리오정부에 의견 제시위해

온타리오정부는 소수민족들의 의견과 요망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한인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한다.

온타리오주 인권옹호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의 인종문제 담당 우발레국장(Dr. B. Ubale, Commissoner for Race Relations)은 교포들이 이땅에서 부딪치는 문제가 무엇이며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 이를 담당장관에게 전해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회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담당 킨·탠(Mr. Khiri Tan)씨는 구상회·김창결·유재신·장순채·차선경씨등 교민들을 접촉, 이미 2차에 걸친 회의를 가졌다.

대표자회의는 오는 28일(목) 하오7시 퀸스팍(온타리오정부청사)의 맥도날드·블럭(웰스리 × 베이·스트릿 소재건물) 카와타·룸(Kawartha Room)에서 열린다.

참석범위는 종교단체, 학교, 강습소등을 포함, 한인사회 내의 각종단체 대표들이다.

대표들에게 별도의 초청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대표를 보낼 단체의 종류 및 회원크기등에 특정한 제한은 없다.

주관자인 온타리오 인권옹호위원회는 이미 중국계와 이같은 회합을 가졌고 이때 많은 요망사항을 청취했다.

담당 「탠」씨는 싱가폴 출신 중국계이다.

준비위원격인 구상회 박사는 21일 "한인단체 대표자들이 이번 회합에 될수록 많이 나와 각분야에 걸쳐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온타리오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등을 강력히 주장해 달라"고 요망했다.

「大盜」 잡혔다

조세형 탈주6일만에

(서울본사전화) 대도 조세형이 탈주 6일째인 19일 상오 10시30분께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경찰관이 쏜 권총에 맞고 검거됐다.

조는 이날 상오 10시12분께 이원주(18세)군이 목격하고 신고함에 따라 경찰의 추격끝에 체포됐다. 〈관계기사 5·7면〉

남한인구 39,743,000명

8월말 4천만명선 돌파예정

(서울21일=연합)남한의 인구는 3월말 현재 39,743,000명으로 집계됐으며, 8월에 4천만명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경제기획원이 21일 발표했다.

경제기획원통계국은 한국의 인구는 연1.57%로 증가, 8월말에는 4천만8천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PB의 인구분석가들은인구증가율의중요원인이 수입가능연령의 여성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밝혔다.

15세~49세까지의 여성인구의 증가는 75년도에 8,179,000명에서 82년에는 9,959,000에 이르렀다.

경제기획원은 인구증가의 또하나의 요인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남자아이 선호사상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 실례로 2남을 둔 부부의 71%는 가족계획을 실시하나 2녀를 둔 부부는 41%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생 1,000여명 데모

민주개혁 외치며 경찰과 투석전

(서울=외신)19일 연세대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페퍼포그등으로 무장한 폭동진압경찰 약6백여명이 캠퍼스내로 진입했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

이날 1천여명의 연세대생들은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최류탄을 쏘며 교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투석으로 맞섰다.

이날 데모는 학생들이 4·19기념행사 허가 요청을 학교당국이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 연행된 학생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오늘의 예금금리(4. 6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8 %		7.25%
90일	8 %		7.25%
180일	8.5%	8.25%	7.75%
365일	8.75%	8.25%	8.0%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선거장에 소수민족 동원

토론토·스타지 조·크락에 혹평

죠·클락 보수당 연방당수후보는 20일밤 토론토에서 소수민족을 동원, 6월의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할 대의원을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으나 대신 당내의 노련한 동료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토론토·스타지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죠·클락반대자들의 말을 인용, 데이븐포트 선거구에서는 클락지지자들이 이웃, 친구, 가족등을 동원, 당선되었으며 이들은 "급조된 신진 보수당무리"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스트·욕 선거구에서는 희랍계 콤뮤니티에서 300여명이 동원되어 4명의 대의원중 2명의 죠·크락지지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들 희랍인들을 크락의 Greek Machine이라고 혹평했다.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

토론토 생계비 계속 상승

캐나다통계국(Canada Statistics)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토론토의 전반적인 생활비가 전년도에 비해 7.8%, 식료품비는 3% 상승했다.

지난달 1회 평균 그로서리 비용은 $83.86로서 2월의 $83.40보다 46센트,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37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캐나다 전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6년내 가장 낮은 7.2%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달 캐나다전국 1회 식료품비용은 $83.54로 전년도 $82.36보다는 다소 증가했으나, 2월의 $83.71보다는 오히려 하락했다.

캐나다 농산물관계 경제학자인 슈마·베어웰씨는 "이같은 현상은 패백주내의 수퍼마켓간의 가격경쟁 때문"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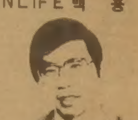
— 〈오늘의 시세〉 —

CN$1.00 = 620.41원
CN$1.00 = US81.20센트
금(런던) = $534.16
은(토론토) = $14.58/oz.

한국일보 533-2361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불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 3800 284 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롤렉스 란콤화장품 보너스쎄일 귀국선물
오메가시계 45% ~50% 할인
은하보석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세방여행사 IATA
업무안내
⊙한국·미국·캐나다·유럽등 항공권판매
⊙스키, 플로리다, 유럽등 관광패케지
⊙방문초청, 수속, 번역등 서류작성
⊙캐나다, 미국 각종대학 유학상담
⊙호텔, 렌트카예약및 기차표판매

Sebang Travel Service Ltd.
유승빈
720 Spadina Ave. Suite 104
Toronto, ONT. M5S 2T9
(416)928-3335
(R) 532-9581
△몬트리올(정관성)514-672-8399
△위니펙(이영호)204-783-0007

직원모집

새로 선립된 김치공장에서는 나음과 같이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실업자구제정책에 의거하여 한인사회내에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계획하에서 현재 실업중이며 더이상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다.

(1)자 격 : 가) 현재 실업중인 분으로 UIC시턴을 더 받을 수 없는 분.
나) 신체건강하며 계속 고용을 원하시는 분.
다) 한국음식(저림종류)을 맛있게 조제할 수 있는 분.

(2)모집인원 및 대우 가) 공장지배인 1명 주당 $400이상
나) 재료조달사 1명 시간당$8.00이상대우
다) 저림사 3명 시간당$7.00이상대우
라) 포장사 1명 시간당$7.00이상대우
마) 배달운전사 1명 시간당$8.00이상대우

(3)등 록 처 : JANE & LAWRENCE WEST MANPOWER CENTER 또는 NEW MANPOWER CENTER.

(4)문 의 처 : ☎248-6389(토론토), 또는 (1)-775-6256(봉학농장)

(5)근무예정 : 4월25일경부터

1983년 4월21일

KIM CHI CANADA LTD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신제품
$395
(파나소닉제)
PAPER -SERVICE- REPAIR
(2년 보증)
각종 저울, 계산기
특별세일
안 수 일
252-7377 (R)762-4536
822 THE QUEENS
(린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완인태권도장 장학금설치

기본 5만달러목표에 매년 1만달러 증액

완인태권도장(관장 : 이경태)은 학업과 무도에 정진함으로서 지인용(智仁勇)을 겸한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여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완인태권도 장학기금을 설치했다.

이 기금은 지난해 10월23일 장학기금을 위한 모금파티의 이익금과 개인기부에 의한 13,000달러를 토대로 출발했으며 앞으로 기본금 50,000달러를 목표로 매년 10,000달러씩 증액할 본격적인 사업계획에 착수했다.

금년계획으로서는 우선 11명의 초·중학생으로 지급대상을 국한하고 있지만 점차로 고등·대학생은 물론, 한국에 까지 지급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금년도 선발할 장학생의 자격은 평균 B학점이상으로 1년이상의 태권도를 수련한 경력의 소지자이며, 인원은 Grade 1-4에 한국인 4명과 외국인 3명, Grade 5-8에 한국인과 외국인 각 2명씩 총11명이다.

제출서류는 응모원서와 학교성적증명서, 태권도수련기록표(추천서), 작문 1통씩이다.

서류제출마감은 6월10일까지이며 제출처는 (1) 2283 Yonge St, Toronto, M4P 2C8, Tel : 483-4002.

(2) 1865 Lawrence Ave, E, Scarborough M1R 2Y3, Tel : 759-2500이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직장 잃을지도

캐나다 전국 8만여 간호보조원

온타리오주내의 간호보조원들은 만약 병원당국이 「듀빈보고서(Dubin Report)」의 제안을 따를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다.

「듀빈보고서」란 간호보조원을 포함한 모든 간호직종 종사자들은 학위소유자이어야 한다고 제안한 의견서이다.

3,8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온타리오 간호보조원 협회는 즉각 이 제안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면서, "애기를 목욕시키고 돌보는데 무슨 학위가 필요하냐"고 반박했다.

현재 간호보조원들은 온타리오 간호학교에서 35주 내지 37주의 코스를 이수한후 자격을 취득한다.

협회 총무인 버나·스테플러씨는 1월에 발표된 「듀빈리포트」의 경과가 어찌 될 것인가의 동향이 주목된다고 밝히면서,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면 온타리오내 19,000명과, 토론토내의 6,000명을 포함한 전국의 80,000여 간호보조원들에게 큰 타격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로 현재 각급병원에서 가장 궂은 일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목욕, 마사지, 병자의 병력체크, 혈압등의 일들을 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3번에 걸쳐 보조간호원 폐지의 여론이 있었다.

교민가게 강도

현금 뺏겨

96 디어헐·우드(Dearham Wood)에 위치한 저그·시티 버라이어티 스토어(Jug City Variety Store) 종업원인 교민 박분숙(25세)씨는 20일 가게에 강도 3명이 들어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메트로·토론토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저녁 7시50분경 3명의 남자피한이 가게에 들어와 박씨를 위협, 카운터뒤로 물러서게 한다음 설합에서 현금을 꺼내 대기하고 있는 차를 타고 포플러·로드(Poplar Road)의 북쪽으로 도주했다.

피한 3명중 1명은 양털모자에 총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또 한명은 칼을 들고 있었고 3번째 범인은 흉기를 들지 않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교 민 동 정

◆김정운=아카데미TV(동부) 상점을 경영하는 김사장 부부는 약 10일간 예정으로 영국을 관광하기 위해 21일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이번 관광은 제니스(Zenith)회사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그동안 상점은 전병걸씨가 맡는다.

金聖鍾작

최강의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217>

헤로인 ⑫

그는 문쪽을 쏘아 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비명소리가 나는것 같아서 왔읍니다.』

밖에서 차장이 말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별일 없읍니까?』

『별일 없읍니다.』

만일 차장이 들어왔다면 사정이 달라 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장은 더이상 알아보려고 하지않고 돌아가 버렸다.

제5의사나이는 열차가 정거할때까지 독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울을 출발한지 두시간만에 열차는 대전역에 닿았다. 그는 가방을 양손에 하나씩들고 밖으로 나왔다. 승강구를 내려서자 짐꾼이 다가왔다.

그가 고개를 끄떡 하자 건장해보이는 짐꾼은 가방을 가볍게 받아들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두개의 가방은 밖으로나오자 지게꾼에게 인계 되었다.

제5의 사나이는 지게꾼의 뒤를천천히 따라갔다.

朴 男 그림

한편 마형사는 입원한 두봉을 찾아가…

그시간에 마인은 병원에서 박두봉을 만나고 있었다.

등과 어깨에 자상을 많이 입은 박두봉은 반듯이 누울수가없어 엎어져 있었다. 상처는 여러 군데였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데가 없어 목숨만은 건진 상태였다. 그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혼수상태가계속되고 있었다.

마인이 달려온 것은 토막살인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이 비슷한 남자가 자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였다.

환자가 쉽게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마형사는 박두봉의 아내를 데리고와서 그녀에게 환자를 보여주었다. 당신 남편이 맞느냐는 물음에 두봉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침9시가 조금지나자 박두봉은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다.

마인은 늙은 김준호형사와 함께 둘이서 병실문을 닫아걸고 심문에 들어갔다.

경찰이라고 하자 두봉은 모든것을 체념한듯 순순히 자백했다.

『당신이 로세를 죽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그상황속에서도 자기 누이에대한 안부를 물었다.

『박문자씨는 구속되어있지만 잘 있어요. 박부인 말이 당신이 독살시킨다음 시체를 토막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부인하지는 않겠읍니다.』

애매하고 소극적인 답변에 수사관들은 날카롭게 눈을 치떴다.

『부인하지는 않겠다는건 무슨뜻이죠? 진범이 따로있다는건가요?』

『아닙니다. 진범은 접니다.』

『여동생과함께 살해한게 아닌가요?』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교민친선골프대회 132명 참가

외환은행 주최, 30일 리치몬드·힐

금년도 교민사회의 골프 시즌·오픈경기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한국외환은행 주최 제1회 교민친선골프대회가 30일(토) 오전11시부터 리치몬드·힐(Richmond Hill)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이날경기에는 당초 주최측에서 20일까지 마감 선착순 120명에 한하기로 했으나 신청자가 쇄도, 부득이 132명을 참가시키기로 했다. 참가자중에는 이상훈 토론토총영사를 비롯, 많은 교민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에따라 주최측은 한인골프협회와 상의, 선착순과 핸디를 고려하여 1조 4명으로 33개조를 이미 편성했다.

대회 시상으로는 그로스챔피온에 캐나다외환은행장배가 수여되며 이외에 그로스 1·2·3등, 네트 1·2·3등과 행운상으로 Nearest상과 Longest상이 있다.

이날 참석자의 회비는 그린피와 디너포함 20$.

노점상인 횡재

오림픽복권당첨 1억 받아

(서울 21일=연합) 간밤에 돼지꿈을 꾼 손수레 과일장사가 올림픽복권에 1등으로 당첨되어 1억원을 타게 되어 화제.

올림픽복권이란 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4월1일에 첫 발매되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충청남도 대전에서 손수레를 끌고 과일을 팔고있는 김천복씨로 4월15일밤 고향에 있는 옛집에 큰 돼지 한마리가 달려 들어와 두손으로 잡는 꿈을 꾸고 다음날 자신의 손수레가게 옆에 있는 복권판매소에서 1,000원짜리 복권 2장을 샀다고 말했다.

8식구의 가장인 김씨는 지금도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하다면서 이돈으로 집을 마련, 전세신세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금 1억원중에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80,875,000원을 한국주택에서 찾아 자기통장에 넣었다.

재활훈련기구 바자회

5월4일 세인트·로렌스·마켓

재활훈련기구(Organization for Rehabilitation Through Training)는 동기구 부녀회주관으로 오는 5월4일(수) 오전10시부터 밤10시까지 St,Lawrence Market에서 제35회 「ORT 바자회」를 개최한다.

ORT는 신체장애자와 직업재해자들에게 재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조직체로서, 특히 신체장애 아동들에게 중점을 둔 자선사업단체이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날의 바자출품 내용을 보면 아동복, 장난감, 책, 구두, Houseware, 레코드, 쿠키(Cookies), 화장품, 보석, 수공예품, 비디오게임, 음식등 다채롭다.

또한 이날 장애자들이 입과 발로 그린 그림을 특별전시하고 시범도 보일 예정이다.

ORT의 모토는 "인간의 신성한 기술발휘와 복지국가"로서 모든 사람의 참여와 도움을 촉구하고 있다.

바자회의 입장료는 일반 $1, 12세이하 무료, 노인은 3세이후 무료이다.

바자장소는 다운타운 Front St at Jarvis St.에 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787-0297.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hw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 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새 도로표시판 고안

전국적으로 실시방침

최근 캐나다 교통신호판 고안위원회는 고속도로상에 설치할 7가지 새로운 표시판을 고안, 곧 전국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새 고안들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상징적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기존 표시판인 원형과 마름모, 네모형태의 경고판 윤곽에 내용물만 새로 고안하여 낯설지 않게 판별하도록 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1)차선(Lane)사용 제한표시, 이 표시가 있는 곳에서 트럭이 주행할 수 없다.

2)보트진수램프표시(Boat-Launch Ramp)

3)위험물품 금지표시(Dangerous Goods Prohibited)

4)위험물품 허가표시(Dangerous Goods Permitted)

5)식당시설표시(Food Market)

6)스노모빌 횡단표시(Snowmobile Crossing)

7)낮은 기아표시(Low Gear)와 경도표시.

이상의 모든 표식은 같은 색과 규격으로 되어 있으며, 빛에 반사되어 쉽게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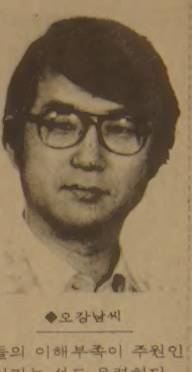
◆새로 등장할 도로표지판.

〈현대적 속담풀이〉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

—십대에의 관심—

오강남(종교학박사)



◆오강남씨

이 속담의 연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통설에 의하면 10년동안 하루같이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염불을 하던 수도승이 하루는 개성의 유명한 기생에게 반해 그동안 쌓은 공을 허사로 돌아가게 했다는데서 생긴 이야기라고 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아뭏든 오랜 세월동안 드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린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가 들이는 공들중에 자녀들을 위해 들이는 공보다 오래고 큰 것이 달리 있을까?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서 그 오랫동안 들였던 공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러 있음을 보게 될 때 가슴 아프다.

북미에서 청소년 자살율이 지난 30년간에 300%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15~24세 사이의 청소년 자살율은 지난 10년간 3배내지 5배가량 늘었다는 통계숫자다.

현재 전체 자살자들 4명중 한명은 이 연령층에 속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사망원인중 자살이 교통사고 다음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자 한명에 대해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30~40명이라니 삶을 등지려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는가 새삼 놀라울 뿐이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일까? 싸스카치완대학 어느 아동심리학교수의 말에 의하면, 「성적, 운동, 대인관계등의 경쟁에서 이겨야한다는 압박감, 타인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데 대한 좌절감, 허무감」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에 부딪친 청소년들중 어디에도 가서 의지하거나 상의할 사람이 없으면 자살이라는 길을 택하기 쉬운 것이라고, 따라서 이혼이나 사망으로 부모를 잃은 10대에서 자살율이 현격하게 높다고 한다.

토론토에서 71~77년동안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부모중 한쪽이 없는 가정에서 10대 자살율이 평균치보다 2배가 높고, 부모둘다 없는 아이들에게서는 4배나 더 높다는 것.

부모중 한쪽이 없는 경우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자살율이 증가한데 대한 이유로 물론 다른 이론들도 있다.

「베이비 붐」세대는 서로 경쟁이 심해서 자살율의 증가를 보였지만, 그것은 70년대로 끝나고, 80년도에는 자살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살율과 실업율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실업율이 1% 증가하는데 따라 자살자가 318명이 증가한다고.

소속감이 없을때 자살이 따른다는 이론도 있다. 전쟁이 나면 '자살율이 확 줄어드는데 그것은 전쟁이 소속감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사소통의 결핍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이들의 문제에 대한 성인들의 이해부족이 주원인이라는 설도 유력하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무서운 일이다. 10대들의 자살은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라 「십몇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다. 그뿐아니라 이것은 자살하는 본인과 부모 형제들, 사회전체에 관계되는 복합적 「나무아미타불」이다.

물론 한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모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자녀들을 돌보도록 해야겠다.

한가지 놀라운 것은 자살에는 치료란 있을수 없고, 오로지 예방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뒷받침을 해주자. 그러나 너무 PUSH하지는 말자.

희망과 계획은 지니되 너무 허황된 기대는 삼가자.

자녀들이 모두 싱싱하게 자라도록 건강한 토양, 알맞은 환경을 조성해주자.

그들이 구김없이 자라나서 일군이 되는 것을 볼 때 「십년공부」가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고혈압·관절염·동맥경화·장질환증세에 의학적 입증!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라트롭 유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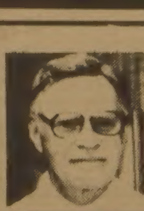
순수 자연건강제 라트롭 유카(LATHROP YUCCA)를 개발한 라트롭연구소는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금도 쉬지 않고 있읍니다.

수세기 전부터 비법으로 전수되고 있는 신비의 약재 열대식물을 현대의학에 의해 제품화한 라트롭 유카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 7년동안 2,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 연구진들의 임상실험을 거쳐 생산되는 것으로서 중년이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콜레스테롤(동맥경화), TRIGLYCERIDES, 관절염, 복부팽만감, 장내개스, 간헐설사, 그외의 여러가지 장질환에 놀라운 효과를 주었으며 또한 예방이 되는것으로 미국 여러 의학지에 발표 되었읍니다.

특히 FDA(미식품의약국)의 검사를 받아 생산되는 라트롭 유카는 순수자연식물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읍니다. (6개월 이상 복용 바랍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라트롭 유카를 꼭 확인 하십시요!

위의 상세한 연구 및 임상실험 결과보고는 의학지 「ARTHRITIS NEWS TODAY」1980년 2월호 및 1982년 6월호, 의학지 「JOURNAL OF APPLIED NUTRITION TODAY」1978년4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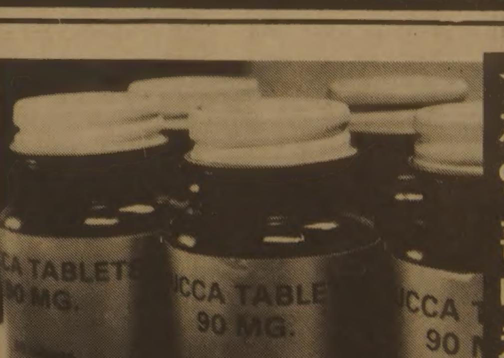
본 라트롭 유카를 직접 임상 실험했던 의학박사 로버트 빙햄
ROBERT BINGHAM M.D
현 국립관절염 의학진료소 병원 원장
현 에스퍼낸자 인터컴뮤니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진들—

고혈압 부분
○의학박사 & 전문의…빙햄(DR. ROBERT BINGHAM)
○내과전문의…………해리스(MD. HARRIS)
○생화학박사…………라가(PH. D. LAGAL)

관절염 부분
○의학박사 & 전문의…빙햄(DR. ROBERT BINGHAM)
○정형외과전문의………벨로우(M. D. JOEVA BELLOW)
○류마티스전문의………버날드(M. D. BERNARD)

다른 연구소 임상실험
○의학박사……폴아세손(DR. P. ISAASSON)
○의학박사……로버트엘리어트(DR. R. ELLIOTT)



★지역판매처 모집★

빅 세븐의 세일품목
○고려인삼 6년근 $59.00
○북경 우황청심환진품 $18.00
○봄철 T 샤쓰 $19.00
○London Fog 남자바바리 $99.00
○알라스카 생녹용 $69.00
○독일제 간장약 엣센살
○여자용 물세무 코트

〈선물용품 20% 할인.

660 Bloor St. W.
TORONTO, ONTARIO
PHONE: 533-8110

대표 김영철

빅*세븐무역선물센타

노인들은 여전 가난해

은퇴자 점점 증가도 문제

"정년퇴직의 즐거움이라고요? 은퇴라고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겠지만 월650달러를 가지고 근근히 살고 아내와 맥주 한병을 나누어 먹어야하니 직장다닐 때가 그립지요."

오늘날 연금혜택자인 65세이상의 캐네디언노인들은 풍요한 사회(Affluent Society)로부터 점점 멀거져 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수명이 여자 77세, 남자 70세이므로 앞으로 10여년을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행 개인연금(Private Pension)플랜은 캐나다인의 약57%만을 카버하고 있으며 은퇴자의 절반가량은 커플당 연12,000달러미만의 연방 및 주정부수당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2천년대에 가면 더국 심각한 고비에 봉착할 것 같다. 2차대전후 태어난 베이비•붐(Baby Boom) 세대들이 은퇴연령에 달하는 2030년도에는 연금수혜자의 수가 현재보다 3배가 늘어 6백만명 이상에 달해 근로자와 연금자의 비율이 현재의 5대1에서 2대1로 육박하게 될것같다고 인구통계학자들이 경고했다.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줄어드는 반면 실직자, 복지 및 노인의료등을 위한 소시얼•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은 증가하니 누가 은퇴자들을 먹여살리겠는가? 21세기에도 은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주 미국에서는 레이건대통령이 사회보장연금혜택 자격연령을 2017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아직 은퇴연령 상향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않지만 머지않아 이에대한 압력이 쇄도할것으로 보인다고 필라델피아의 드렉셀대학(Drexel University)의 사회학자인 아드•쇼스탁 교수는 말했다.

미국에서는 전체노동력의 13%가 60세이상의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는 여자의 약4%와 남자의 15%가 65세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RRSP, 개인연금계획(Private Pension Plan), 혹은 기타투자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연방노년보장및 특별보충자금으로부터 1인당 1년간 최소한 5,695달러의 지급을 보장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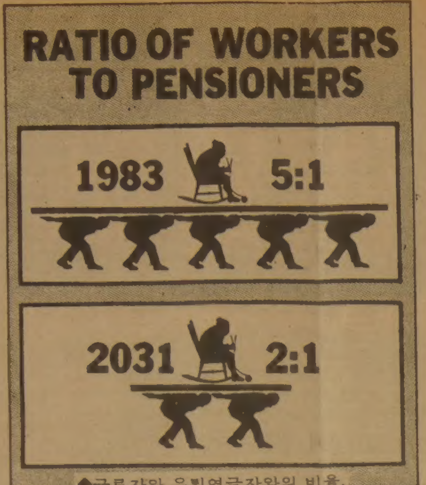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퍼브릭 연금계획인 노년보장연금(OAS)은 65세가 되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

OAS를 지급받는 사람중 절반이상은 일반수입 보조비(General Income Supplement)를 함께 받고있으며 배우자가 OAS를 받고있는 저소득 가정에서는 60세내지 64에의 남편 혹은 부인에게 배우자수당(Spouse's Allowance)이 지급된다.

OAS는 노인들이 받는 총수입의 약25%에 해당한다.

1966년도에 신설된 보다 현대적인 발명품인 캐나다•펜션•플랜(Canada Pension Plan)은 8%에 해당한다.

현재 캐나다내 모든 고용자는 소득의 1.8%를 캐나다•펜션•플랜의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와 은퇴연금자와의 비율.

한국으로 보내지는 소4마리

LA공항 KAL화물기서 줄행랑소동

(LA지사)KAL화물기로 한국에 보내지는 소들중 4마리가 18일밤 LA터미널에서 작업반의 소홀로 울타리를 벗어나 활주로로 도망나가는 바람에 공항에 비상이 걸려 1배여 항공기가 이착륙을 못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난리로 공항활주로 2개가 폐쇄되었으며, 공항 경비원들과 소들간에 로데오경기를 방불케하는 소몰이 묘기가 펼쳐져 대합실에서 기다리던 여객들도 폭소를 터뜨리는 진풍경이 밤9시50분부터 1시간20분동안이나 계속되었다.

LA의 매스컴이 총동원되어 지켜본 이날 소동은 서울행 소93마리가 트럭에서 KAL점보화물기(보잉 747) 083기편에 옮겨지는 찰라 그중 한마리가 미끄러져 뒤따르던 소들이 그위에 포개지는 바람에 아우성이 벌어졌다.

이 수라장으로 브릿지울타리가 비껴지면서 그사이로 순식간에 소4마리가 빠져나가 어둠이 짙은 공항활주로로 향해 도망쳤다.

KAL측의 긴급신고를 받은 LA공항관리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공항경비대, 공항관리반 등을 긴급출동시켰으며, 3대의 패트롤카를 동원해 KAL화물직원및 용역회사 ARA직원들과 함께 카우보이식 소몰이작전을 벌이고 4개국내선 활주로중 북쪽 2개활주로를 잠정 폐쇄했다.

소4마리중 한마리는 동쪽으로 나머지 3마리는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울타리를 빠져나간후 1시간30분만인 밤11시30분께 우선 3마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새벽 1시께야 발견해 울타리로 보내졌다.

공항국 니콜스대변인은 LA공항 존•히스 관리차장이 KAL측에 대하여 화물안전조치가 새로 인정될때 까지 일체의 가축용화물운송을 잠정적으로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들은 미국의 에이베회사가 한국축산협회로 보내는 것들이었다.

트롤리빼스 사라진다

TTC 80년말까지 디젤빼스로 대체

1960년대를 풍미했던 북미최초의 전기트롤리빼스(Electric Trolley Bus)가 메트로•토론토에서 사라질 것 같다.

TTC는 19일 한 보고서를 통해 트롤리가80년대 말까지는 디젤빼스로 대체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개솔린가격의 인상에 따라 60년대에 전기버스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개발했다.

이 보고서는 몇년전까지만해도 트롤리가 디젤빼스에 비해 비용이 적게들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반대인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0피트형 트롤리는 대당 27만달러이나, 디젤버스는 14만5천달러이며, 트롤리의 경우 전선건설에 마일당 100만달러가 소요되어 실제 운용비를 계산하면 마일당 트롤리는 36.39센트인데 비해 디젤빼스는 33.35센트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메트로•토론토에는 150대의 트롤리가 있으며, 이중 114대가 8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다.

TTC의 수석매니저인 알프•새비지씨는 결국 현재 경제추세로는 1990년도 까지는 트롤리가 모두 디젤빼스로 대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뱅쿠버의 경우는 토론토와 다르다.

현재 뱅쿠버는 오히려 245대의 트롤리를 주문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25년후에는 환경조건상 공해도가 없으며, 정비에도 수월한 트롤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0년도말까지 토론토의 전기 트로리빼스가 사라질 것같다。현재 메트로•토론토에는 1백14대가 8개노선에 운행되고 있다。

작년 3만1백60명

주한 미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뉴욕지사)82회계년도중(81년10월—82년9월) 한국인 3만1백60명이 주한미대사관으로 부터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이민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성 영사담당 잔•코필드대변인에 따르면 이중 1만1천17명이 미시민권자의 직계가족(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21세이하의 자녀)이며, 나머지 1만9천1백43명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초청,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초청, 취업이민등으로 입국했다는 것이다.

82회계년도 첫 6개월간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B-1(상용)비자가 1만3천53명, B-2(방문)비자가 9천3백32명, E-1(주재원) 1천89명, F-1(학생) 1천8백73명이다.

국무성은 81회계년도중에는 한국인 약2만8천5백60명이 이민으로, 6만2천3백57명이 비이민비자로 미국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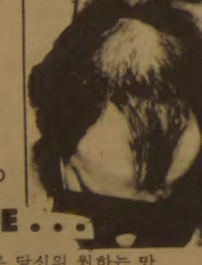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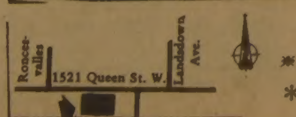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용신의 "人間市場"
●한국 事情•人脈을 캔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새로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십시요。

YES IT'S TRUE . . .
우리 전문가들은 당신의 원하는 만족한 결과의 85%이상 비율로 성공해왔음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머리털에 대한 모든 분석과 최신시설로써 머리털성장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당신의 머리털 손실을 감소해 드립니다.
우리훈련된 전문가는 머리털의 근본문제를 해결합니다.
머리털이 빠지는 원인을 찾아 자신을 갖고 치료합니다.
고민 있으신분, 당장 연락바랍니다.
You're only your hair to Gain!
◉미리 약속시간을 정하십시요.
▲매일(월~금): 오전11시~오후8시
▲ (토): 오전9시~오후3시
'HAIR RESEARCH CENTRE'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제일오토바디
봄맞이 특별튠업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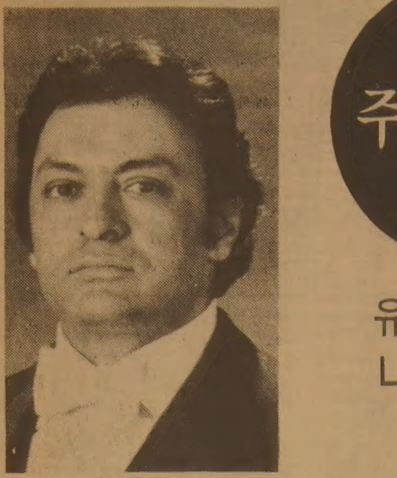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저 다가오는 봄을 맞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기간 : 1개월간.
일반차량 : 8기통… $49.95
6기통… $42.95
4기통… $36.95
*물론 튜납시 엔진샴푸도 포함.
※오일및 필터 교환 류브리케이숀 $16.95 Regular에 한함.)
*브레이크 JOB $99.95


1521 QUEEN ST. W. B)532-0200, R)537-5830

알림
저희 비데오센터를 이용하시는 교민들께 알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어느 좋지못한 교포가 빌려간 비데오•테잎 중간중간에 성교사장면을 삽입시켜 저희 및 다른 손님들을 당혹케 하고 있읍니다.
과거 몇차례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가 잠시 시정되었으나, 다시금 새로 들여온 테잎에 꼭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비즈네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사오니 누구인지 이 자를 발견하거나 신고하시는 분께는 후사하겠읍니다.
한국비데오센터
678 BLOOR ST. W.
☎: 532-0210 손병헌

다시 지휘봉잡은 주빈·메타

유럽 公演앞두고 「줄리니」病席에 LA 필하모닉서 "긴급구조"요청



▲주빈·메타

주빈·메타. 1978년 카를로·마리아·줄리니에게 L.A.필하모닉의 지휘자 바톤을 물려주고 뉴욕필하모닉으로 떠난 그가 병석에 있는 줄리니의 핀치히터로 다시 L.A.필하모닉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L.A.필하모닉의 긴급구조 요청에 의한 것으로 L.A.필하모닉을 위한 우정출연이라고.

다음달부터 유럽순회 연주여행을 갖게 될 L.A.필하모닉은 갑작스런 줄리니의 병환으로 지휘자를 잃게 되어버린것. 이런 공연은 앞으로 5~6년안에는 다시 오지 못할 절호의 찬스로 L.A.필하모닉측은 스케줄을 포기할 수 없어 메타에게 긴급 구조요청을 한

메타는 다음달부터 일년에 한번뿐인 휴가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L.A.필하모닉의 딱한 사정에 휴가도 포기한채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순회공연은 21번의 컨서트로 스케쥴이 짜있으나 메타가 할 수 있는 공연은 11번째 컨서트까지 밖에 없다고.

결국 줄리니가 이것에 맞춰 순회공연에 설 수 없다면 L.A.필하모닉은 도중에서 컨서트를 끝내는 수밖에 없다.

메타가 오랫동안 L.A.필하모닉을 떠나있었고 현재 단원중 22명이 새로운 멤버들로 메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메타는 자신만만하다. 더우기 첫 연주회장인 플로렌스에서 메타가 가질 수 있는 리허설 기간은 오직 하루뿐. 그러나 메타는 L.A.필하모닉이라면 별로 준비가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그가 L.A.필하모닉과 마지막으로 가진 공연은 1981년 여름 헐리웃볼이었고, 마지막 연주곡은 말러의 교향곡 3번이었다. 그러나 이번 유럽순회공연은 「브람스 페스티벌」로 레퍼토리가 짜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있는 곡으로 대치함이 없이 원래 스케쥴을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다.

메타가 처음 L.A.필하모닉에 온 것은 1961년 26세때로 그후 16년간 이곳에서 지휘봉을 잡은 그였다. 이곳에서 명성을 날리고 L.A.필하모닉을 지금의 수준으로 키워온 그가 이번 핀치히터격의 자리를 얼마나 빛내줄지 자못 궁금하다.

민첩하고 정열적인 메타의 지휘봉을 든 모습은 그의 이국적인 외모(인도출생)로 특히 여성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지휘솜씨가 탁월한 레퍼토리는 스트라우스, 말러, 부르크의 작품이다.

한국일보

북미시장 침투 한국산 콤퓨터

(서울 19일=연합) 한국산 마이크로·콤퓨터가 북미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금성사는 캘리포니아소재 OSM콤퓨터회사와 85년까지 10만대의 8-BYTE형 마이크로·콤퓨터 공급계약을 맺고 19일 1차분인 1천대(1천만달러)를 선적했다.

금성사는 내년부터 자체개발한 16-BYTE 마이크로·콤퓨터도 수출할 계획이다.

한인갱단 수배 LA경찰국

(LA지사)LA경찰국은 하와이주에서 도주해온 한인청소년 갱단3명을 수배했으며, 이들 검거를 위해 교포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LAPD동양인과의 짐·브르머수사관은 11일 "하와이주 경찰당국으로 부터 3명의 한인청소년 수배의뢰를 접수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인근 경찰서나 LAPD에 직접 연락해주기를 당부했다.

브르머수사관이 밝힌 3명의 한인청소년은 최두원, 김두영 그리고 고성현군등으로 최군과 김군은 각각 불법무기소지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시원한 여름포즈"

▲조금있으면 수영의 계절. TV극「댈론·크레스트」의 곡선미 넘치는 샤논·트위드와「칩스」의 브루스·펜할이 미리 시원하다고 귀여운 포즈를 취했다. —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연재소설〉

혼돈

글·이태준 그림·최미경

제1편 출국

눈을 떴다. 내가 이상한 곳에 누워있었다. 벌떡 일어나 여기가 어딘가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경찰서 구치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골치가 쑤시고, 온몸이 밤새 두들겨 맞은 것같이 결렸으나, 기억을 더듬어 (내가 왜 여기에 와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내려 골똘했다. 기억이 없다. 전혀 기억이 없다. 「우암운명철학소」에서 기분이 나빠 나와서 맥주를 마시러 진고개 맥주집으로 들어간 기억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나는 늦도록 술을 마시다 통금에 걸린걸까? 술을 마시다 말썽을 부린 걸까?

아무리 기억해 내려 애써도 내 기억은 맥주집에 들어간 이후는 단절되어 눈뜨기 전까지는 공백이었다. 기억해내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어디에 간직해 두고 찾아내지 못하는 것같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안절부절을 못했다.

왜 그럴까?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렇다. 내 핸드백이 없다. 내 생명과 같은 여권이 들어있는 핸드백이 없다.

"내 핸드백? 내 여권?"

나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맹인이 길거리에서 놓친 지팡이를 찾듯이 한평짜리 구치소의 방을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당직 경관이 당직실에서 뛰어나왔다.

"아가씨, 또 시작할 시간인가요? 여기는 술집이 아니라 경찰서요"

"아저씨? 내 핸드백과 내 여권을 못 보셨어요?"

그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당황스럽게 물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술을 마시고 발광을 했소?"

능글맞게 비꼬는 말투였다.

"아저씨, 나는 그게 없으면 죽은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미래의 내 생명줄 입니다"

그는 허리띠에 차고 있던 키중에서 하나를 골라 내 방의 문을 땄다.

"조용히 하고 따라 오시오. 당신의 생명줄을 줄테니 따라오시오"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싶도록 고마워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였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핸드백과 여권을 확인하고 싶어서 서두르며 그를 따라갔다. 퇴색하고 장식이 없는 방에는 오래된 나무책상과 철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소지품이라고 씌여진 큰 서랍을 열고 내 핸드백을 내밀었다.

"떠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위해 그냥 보내겠소.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시오"

무뚝뚝한 인상으로 무뚝뚝하게 쏘아붙이는 말이였으나,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핸드백을 받아 여권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눈도 부시고 골치도 아프고, 폭음뒤의 고통스러운 후유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갈증을 풀기위해 시원한 냉수를 꿀꺽꿀꺽 마신 뒤, 뜨끈뜨끈한 커피를 한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눈을 두리번거려 다방을 찾아 보았다. 경찰서를 마주본 길 건너편에 다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몸으로 육교를 건넌다는 것은 지겨운 일이다. 육교의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오르던 나는 신경질이 났다.

오르던 육교를 다시 내려가서 차도를 뛰어 건너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경찰서 구치소에서 하루밤을 지낸 그녀는

"참자, 참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땅을 벗어날 것이 아닌가, 거대한 원시동물의 뼈대같이 볼상 사나운 육교도, 습하고 답답한 지하도도 그리워질 것이 아닌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순간도 넓은 나라에서 넓은 길을 건널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위로하며 육교를 힘겹게 건너 다방으로 들어갔다.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차를 마시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에게로 쏠렸다간 원상으로 돌아갔다. 그순간 나는 한 얼굴을 보았다.

그와 나의 시선이 마주쳐 서로 놀라고 망설이는 찰나가 지났을 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손짓을 했다.

가슴이 설렁거리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웬일이십니까? 애자씨같이 아름다운 분이 경찰서 앞의 다방에 다 나오시고……"

그는 분명히 흥분을 억누르고 있었다.

"나야 이미 볼장 다 본 여자지만 애숭씨야 말로 뜻밖이네요. 누구한테 얻어맞기라도 하셨나요?"

"애자씨는 나를 아직도 애기 취급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래서 제가 싫으시다면 자리를 바꾸어 앉을께요"

나는 핸드백을 손에 들며 일어서는 척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자씨, 제가 그동안 애자씨를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경찰서 앞 다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안보았는데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지금은 애자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제밤 술을 먹다 끌려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나와 비슷한 친구를 가지고 계신 모양이군요. 저도 경찰서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방금 나오는 길이예요"

"애자씨는 끝까지 농담으로 끝내실 작정입니까?"

"농담이 아닌걸요"

"저는 애자씨가 그 집을 나온 뒤로 살맛을 잃고 있었읍니다. 애자씨를 찾기위해 술집을 다 뒤질 작정이였읍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왜요? 제가 애숭씨에게 빚진 거라도 있나요?"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러나 애자씨가 잘 알고 계실테니까 말은 않겠읍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멀건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무대에서 춤을 추며 보는 대부분의 눈빛은 음흉스러웠으나, 그의 눈빛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의에 젖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거의 걸르는 날이없이 같은 자리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인상을 하고 앉았던 그가 홀연히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출국수속이 거의 끝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여자들의 퇴근길을 지키고 서있는 것은 애숭이들의 숫법인데 그도 그런 애숭이중의 하나였다.

(계속)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175)

I'M ALL MIXED UP.

모임같은 곳에서 인사를 나눌 때 얼굴도 서로 비슷한데다 Mr. Gim, Mr. Yi가 하도 여럿이기 때문에 더욱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모양이다. 이런 경우 흔히 들 I'm all mixed up.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경우 be mixed up은 「혼동하다」는 뜻으로 「혼동이 되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그 외국인은 우리 이름을 모두 혼동하고 있다」를 be mixed up을 넣어 옮겨 본다면 The foreigner is all mixed up on our names. 하면 되고 시차가 많이 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I'm mixed up on the time. 이라고 했다면 「시간이 혼동된다」는 말이 된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동양인을 만나게 되면 반가운 생각이 앞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을 건네 올텐데 아닌 경우 Huh? 혹은 Excuse me? 아니면 뭐라고 자국어로 지껄이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같은 동양계이면서도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혼동하는 경우에도 I'm all mixed up about the people. (사람을 구별하는데 혼동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

A: Where were you yesterday?
B: Yesterday? I was at home. Why?
A: You were supposed to meet me for lunch.
B: No. Our date is for tomorrow, Thursday.
A: No, it was yesterday, Tuesday.
B: Oh, you're right. I'm all mixed up on the days.

A:어제는 어디 계셨어요?
B:어제요? 집에 있었는데 왜그러시죠?
A:점심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죠.
B:아니오. 우리 약속은 내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A:아니에요. 화요일인 어제였어요.
B:아, 그렇군요. 제가 날짜를 혼동했었읍니다.

※be supposed to:~하기로 되어 있다.
Ex. I was supposed to go to the movies with him.
(그와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
※foreigners:외국인, 외국어:foreign language.

이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 1, 2, 3, 4권을 구입하려면 B.C. Min 7037 Beckwith Mo; on Grove Ill 60053 U.S.A. 로 수표나 모니오더를 보내면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포함) 전화:(312) 966-4050

북미최대의한국식당
거구장 새로 주방장이 왔읍니다.
과거의 음식맛이
완전 달라졌읍니다.
특별출연
"저음의 가수"
배성

매력의 가수 신현희
월~목 오전11시~새벽1시
금 오전11시~새벽2시
토 오후 2시~새벽2시
일요일 오후 2시~새벽1시
회갑,생일.동창회 파티와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ㅁ드럼:권순근
ㅁ키타:신상철
ㅁ올갠:함효상
5 BETHRIDGE RD.
ETOBICOCKE
742-1618 이한영

趙世衡 총싸 잡았다

市民제보→警察추격→人質대치
칼휘두르다 가슴에 1發맞아
실탄 제거 手術받고 拘置所에 移監

어제 서울奬忠洞 住宅街서

大盜 趙世衡(39)은 탈주6일째인 19일 상오10시40분께 서울中區奬忠洞에서 경찰관이쏜 권총에맞고 검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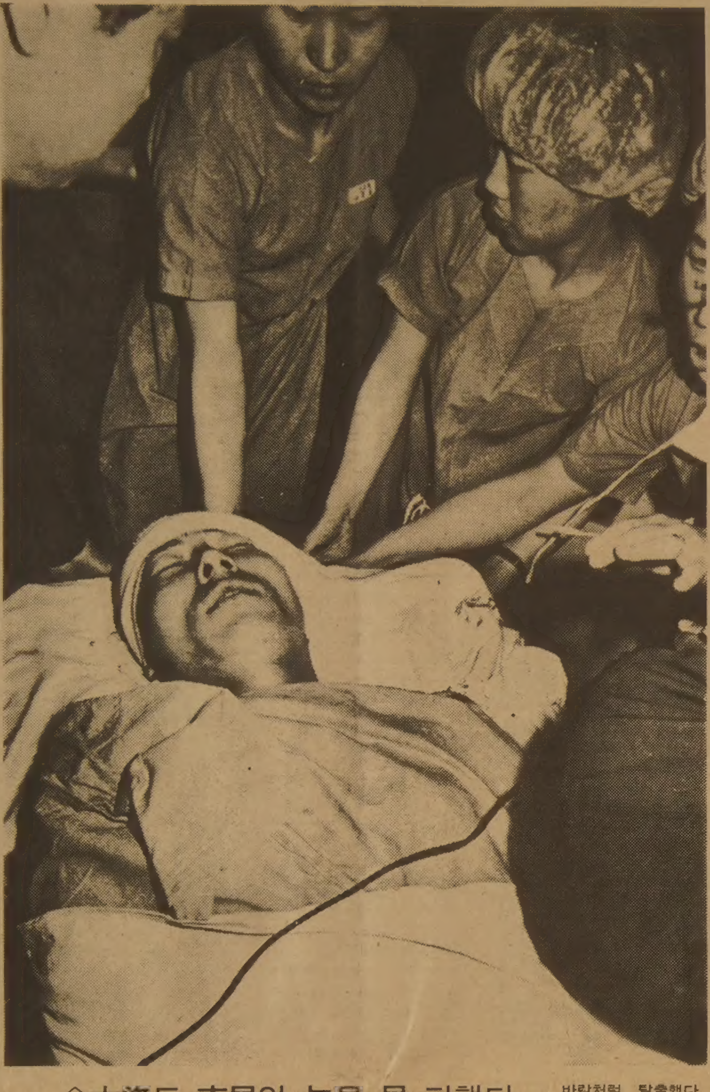
趙는 이날상오 10시12분께 李元柱군(18·재단사)이 목격하고 신고함에따라 경찰의 추격끝에 잡힌것이다.

李군은 이날 모교인 海東상업전수학교로 졸업증명서를 떼러가던길에 奬忠洞1의2앞 골목길에서 趙를발견, 50여m쯤 떨어진 서울中部경찰서 奬忠파출소에 신고했으며 朴璐鎬순경(30)과 鄭炅柱순경(35) 등 2명이 전경4명, 李군과함께 30여분동안 趙를추격, 서울中區奬忠洞2街1의4 金枝億씨(50)집에 숨어있는 것을 포위했다. 그러나 金씨의 아들을 인질로잡고 스카이콩콩과 드라이버, 생선회칼등으로 완강히 버텨 朴순경이 권총4발(2발은공포)을 발사, 이중 1발이 趙의귀를 스치고 가슴에 박혔다.

趙는 이날 경찰의 추격을 받는동안 인근 9개 주택의 담과 지붕·장독대등을 곡예하듯 넘나들다 金씨집에 들어갔으며 화장실에서 金씨의 2남 承煥군(19·明知大2년)을 인질로 잡고 대치했었다.

경찰은 처음 趙에게 자수를 권유, 듣지않자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는데 趙는 생선회칼로 자해하겠다며 완강히 대항했다.

총상을입은 趙는 이날상오11시50분께 서울中區苧洞2街61의7 永樂병원을거쳐 白병원으로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하오3시12분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大盜도 市民의 눈은 못 피했다 바람처럼 탈출했다 하지만 趙世衡은 시민의눈은 끝내 피할수없었다. 6일만에 검거된 趙가 탄환제거수술을 받기위해 白병원 수술실로 옮겨지고있다. 趙는 병원에서 그 황망중에서도 경찰을보고 『無期가 됩니까』라고 한이 맺힌듯 불만을 표시했다.

"절도 無期구형은 억울 공모자없이 單獨脫走"
趙世衡 병원서

趙는 白병원에서 朴孝一신경외과과장(42)의 집도로 趙의 왼쪽늑골에 박혀있는 탄환한발의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이상이없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진 趙는 탈주경위, 공모여부, 도피경위등에 대해 철야신문을 받고있다.

한편 趙는 이날 하오2시15분께 白병원 회복실에서 『탈주는 공모자가 없는 단독범행이었고 범행동기는 절도로 무기징역을 받아 억울했기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서울시내에서 계속 혼자도망다녔고 梁炯淑씨에게 전화한것은 사실』이라고시인했다.

檢擧순경 2명特進 申告人 천만원받아

盧泰愚내무장관은 19일 하오 趙世衡을 검거한 서울中部경찰서 奬忠파출소 朴璐鎬순경(30)과 鄭炅柱순경(35)등 2명을 1계급 특진시키고 격려금 50만원씩을 주었다.

또 범인趙를 신고한 李元柱군(18·재단사)은 현상금 6백만원외에 격려금 4백만원을 보태 1천만원을받았다.

또 도주로를 차단한 中部경찰서 退溪路6가 파출소 金學根경사(50)등 5명의 경찰관과 金돈주일경등 전경2명에게는 각각상금10만원을주고 공로를 표창했다.

"經濟각료 모두 교체를"
國會對政府 질문 2일째

본회의는 19일 經濟분야에대한 이틀째 對정부질문을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로 경제관계질문을 마치고 20일부터는 사회분야에 대한 질문을 벌인다.

이날 첫질문에나선 趙舜衡의원(議政)은 『부총리등 經濟각료들은 경제를 관리 운영할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 『국무총리는 경제각료들의 전면교체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경제시책의 방향전환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投機억제대책 ▲金利조정을 포함한 浮動자금을 흡수할 저축투자수단의 개발 용의 ▲부동산투기와 財閥기업들의 관련여부 ▲外債절감 대책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대책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李龍鎬의원(民正)은 ▲二元化된 産業구조의 合理化방안 ▲農畜産物의 수입억제 ▲農水畜産物의 流通合理化를위해 농수축산물 流通公社를 설립할 용의등을 물었다.

朴完奎의원(民韓)은 『大盜가 高官의집을 털었다하면 수억대의 金品과 귀금속이 쏟아져나오는 이世態는 어떻게 봐야하는가』고 묻고 『三寶證券이 顧客의 預託증권을 임의로처분, 남용·私債놀이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할 금액이 최소한 2백억원이 된다』면서 사건의全貌와 大宇그룹산하의 東洋증권과의合併케한이유를밝히고재무장관을引責, 更迭할용의는없는가고따졌다.

朴有載의원(民正)은 제5차 5개년계획기간중 총1백46만호의 주택을 건설토록 돼있으나 83년도계획에서부터 당초목표와는 12만호나 차질을 빚고있다』고주장,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을 물었다.

金埈成부총리는 답변에서 『인플레 심리가 완전해소되고 자본시장이 형성되는등 여건이 조성되면 金利자율화를 부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수입자유화는 86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높인다는목표아래 모든關稅제도를 개선하고 수입상품豫示制를도입, 산업의충격을완화토록하겠다』고말했다.

姜慶植재무장관은 『금년도 外債상환액은 원리금25억달러와 외채이자 35억달러등 모두 6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벌기업의 非業務用부동산 取得은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힌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시설자금 1천억원, 운전자금 3천5백억원등총4천5백억원을지원할방침』이라고덧붙였다.

徐相喆동자부장관은 『앞으로의 油價대책은 국제原油값의 일시적 騰落에 관계없이 석유의존도를 감축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全斗煥대통령이 폴·테이어美 국방성副장관을 접견, 환담하고 있다. 【崔東完기자찍음】

美국방성 副長官 全대통령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19일하오 청와대에서 폴·테이어 美국방성副長官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 세네월드韓美연합사령관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호세·앙헬·사비논駐韓도미니카, 아페워크·아를라바추駐韓이디오피아대사로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內務·文敎해임안 民韓, 국회에제출

民韓黨은 또이날 경찰관의 폭행치사사건과 문교행정의 失政을들어 내무, 문교장관의 해임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改憲說」등 發言싸고 國會 한때 停會소동

19일하오 국회본회의에서 朴完奎의원이 경제문제에대한 질문도중 『항간에는 改憲說, 三寶증권, 大盜탈주등 3大 不可思議가 있다』고 발언하자 사회를 보던 蔡汶植국회의장이 『議題外의 발언』이라고 마이크를끄고 발언을 중지시켜 民韓黨의원들이 『발언을계속하라』고 소리치는등 소란이 일어나 停會됐다.

朴의원은 『의제외 발언을 하지말라』는 蔡의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강행하자 蔡의장은 서너차례 경고를한뒤 마이크를끄도록 지시했다.

이에 民韓黨의원들이 발언을 계속할것을 주장하자 『회의를 중단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는 이날 하오6시께 蔡의장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지못하고 정회를 하게된것은 의장 自의 사회솜씨 미숙에있다고 省한다』고 사과해명함으로써 40여분만에속개됐다.

駐카메룬 大使에 韓碩鎭공사 승진

정부는 19일 韓碩鎭駐카메룬公使를 大使로 승진발령했다.

▲慶北盈德출신·49세 ▲서울大 정치과卒 ▲외무부통상1과장 ▲東部아프리카과장 ▲駐튀니지·모로코참사관 ▲駐카메룬공사

地平線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은 기자조선시대의 법금팔조(犯禁八條)다. 고조선말기에 해당하는 이시기의 여러 범죄를 처벌하는데 규범이 되었던 8개조 가운데 오늘날 전하기는 3개조 뿐이고 나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 3개조 가운데 도적에 대한 규정이 재미있다. ▼즉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하면 그 주인집의 노예가 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속죄하고자 할때에는 매인당 50만전을 내 놓아야 한다는 별도규정을 두어 돈으로 죄값을 치를수 있게 하였다. 이에 반해서 남을 상하게 하면 곡물로써 보상하게 했으니 상해 보다는 도둑을 더 문제로 삼은듯하다. ▼이 무렵만 해도 부족연맹적인 사회였으므로 이미 권력과 부(富)의 차가 생겨 모권사회로부터 부권사회로 이행케 되고 가족제도도 이루어 졌다. 동시에 재산에 대한 사유관념이 싹트기 시작하여 그에 따른 형벌노비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또한 있다. 이러한 범금(犯禁)은 다분히 만민법적인 색채가 짙다. ▼그런데 시대가 내려와 이 지역에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이 다수 몰려들자 풍속이 나빠졌다. 도둑이 많아지고 여러가지 범죄가 늘어 범금도 60여조로 불어났다. 이와같은 법의 규제는 세월이 갈수록 더 늘기만 했었다. ▼역사시대로 접어든후 신라나 고려시대 보다는 조선시대의 법이 더 조밀해졌고 또 여러 범죄의 발생건수도 늘어나고 있음을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만 훑어 보면 쉬사리 짐작이 간다. 오늘에는 현행 형법 한가지만 보아도 전문3백72조에 부칙이 11조니 이를 합하면 3백83조항에 이른다. ▼범금8조와 비기면 엄청난 차이로서 실로 금석의 감을 새롭게 하지 않을수 없다. 며칠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도범 조세형을 범금8조로 다스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것인지? 상상만해도 흥미로와진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법망(法網)보다는 천망(天網)을 더 두려워 했다. ▼도둑가운데서도 뛰어난 재주를 지녔던것으로 알려진 조세형은 탈주행에서 법망과 천망 이전에 19세 이원주 소년의 신고로 어제 드디어 잡히게되었으니 절로 인망(人網)의 힘을 깨닫게 된다.

社會漫評

"무슈 조./자네 아직 멀었네…"

가장큰 活字… 읽기쉬운 한국일보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SHANGHAI 레스토랑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334 SPADINA AVE.
596-7311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귀하는 83년도 미스·코리아

1. 박선희(17세)

2. 최경선(22세)

3. 조경희(19세)

4. 유경희(18세)

5. 이은경(21세)

6. 오미숙(23세)

7. 장덕향(23세)

8. 강영주(19세)

9. 이석미(19세)

10. 정이경(19세)

11. 김영미(24세)

장연화 · 지미·김 · 권순근과 ADD-K

83년4월23일·토 오후6시
힐튼·하버캐슬 호텔 1층
주최: 토론토한국일보사
후원: 한인연합회, 토론토한인회, 영사관

駐레바논 美大使館폭발 39명 死亡… 120명 負傷

爆發物실은 트럭突進
딜런大使·하비브特使등은 무사

【베이루트 워싱턴 UPI·AP=聯合】레바논 주재 美대사관 7층건물 현관부근에서 18일하오1시5분(한국시간 하오8시5분) 강력한 폭발물이 터져 미국인5명을 포함한 최소한 39명이 사망하고 1백20명이상이 부상했으며 대사관건물이 크게 파손됐다고 레바논경찰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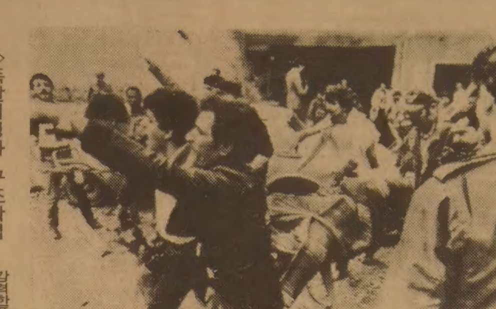
경찰은 약 2백27kg의 폭발물을 적재한 한 트럭이 西베이루트 해안지역에 위치한 美대사관건물로 향해 돌진해 들어가 본관건물의 중심부에 부딪치면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히면서 사건발생 9시간후인 이날밤 현재 사상자수는 1백39명이나 아직도 희생자가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폭발물 테러사건으로 대사관 7층건물 앞부분이 무너져내려 콘크리트 조각의 더미로 변했다고 말하고 문제의 폭탄적재 트럭이 원격조종된 것인지 아니면 테러범에 의해 직접 운전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저주스러운 테러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사건당시 건물안에 있었던 로버트·딜런대사는 무사했으며 필립·하비브 中東특사일행도 이번 사건에 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美관리들은 사건당시 대사관정문에 있던 美해병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4명의 현지고용인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아직도 사망자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직후 「回敎聖戰기구」라고 자칭하는 한 괴단체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폭발희생자 구조작업 강력한폭발물테러로수십명이 사망한 베이루트 주재美대사관에서 18일 구조대원들이 희생자들을 옮기고있다. 【베이루트18日AP電송=聯合】

레이건、강력규탄

【워싱턴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18일 레바논駐在美대사관 폭발사건에 대해 『테러분자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 강력한 분노를 표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사건발생직후 백악관에서 이같이 규탄하고 『대사관폭발로미국의 레바논평화독표가 좌절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래리·스피크스백악관부대변인은 테러분자의 美대사관폭파로 인해 베이루트에서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활동중인 美해병대역할이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美정부에 遺憾표시
제마엘, 메시지전달

【베이루트UPI=聯合】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은 18일하오 레바논주재 美대사관 폭발물테러사건이 발생한후 레이건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제마옐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美대사관에 대한 이같은 범죄행동에 깊은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日自衛隊 수송기추락
훈련중 2臺 山에…14명 全員死亡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항공自衛隊소속 C-I 중형제트수송기 2대가 19일상오 훈련도중 짙은안개로 산에 부딪치면서 추락, 탑승하고있던 14명의 항공자위대요원이 전원사망했다.

항공자위대는 이날 상오 7시 아이찌(愛知縣)고마끼(小牧)기지에서 C-I수송기 6대가 이리마(入間)기지를 향해 출발했으나 짙은안개때문에 1번기와 2번기가 미에(三重縣)에있는 쓰가시마(菅島)산에 부딪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C-I제트 중형수송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개발한 기종으로 정원60명에 항속거리는 1천6백km이며 짧은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가능한 신형수송기이다.

中共·베트남 砲擊戰
國境서 충돌…兩側모두 심각한被害

【北京UPI=聯合】중공·베트남군은 19일 양국국경에서 치열한 포격전을 교환,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이 19일 전했다.

신화사통신은 베트남군의 포격으로 中共남부의 베트남접경 廣西省의 한국민학교와 병원, 수채의 민가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통신은 軍소식통을 인용, 『중공 국경수비대도 이에 보복포격을가해 베트남측에 큰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新華社통신은 최근의 베트남軍 포격으로인한 사상자수를 밝히지않았으며 이보다앞서 지난17일 4명의 「베트남군특공대」가 중공측국경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蘇、中共에협정제의
核武器 不使用원칙

【東京AP聯合=特約】소련은중공과의 어떠한 대결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을하지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하자고 중공당국에 제의했다고 일본외무성

中共·蘇 거의 20년만에 國境무역재개
거래액 2천~2천4백만 스위스프랑

【東京AP=聯合】중공과 소련은 거의 20년만에 양국간 국경무역을 최근 재개했다고 일본의 교오도(共同)통신이 18일 보도 했다.

이 통신은 이번협정에따라 中共은 소련에 일용품 경공업제품 식료품등을 수출하는대신 소련으로 부터 목재 석탄 비료 자동차 전자제품등을 수입할 것이며 이에따른쌍무무역액수는2천만~2천4백만스위스프랑에 달할것이라고전했다.

WP紙등 퓰리처賞

【뉴욕AP·UPI=聯合】올해 제67회 퓰리처상경쟁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지가 각각 2개부문의 상을 수상했으며 피션부문의 상은 최초로 흑인여성에게 돌아갔다고 콜럼비아대학이 18일 발표했다.

퓰리처상을 주관하고있는 콜럼비아대학은 뉴욕타임즈의 토머스·프리드먼과 워싱턴 포스트의 로렌·젠킨스기자가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과 그이후의 사태를 다룬 기사로 국제보도상을 공동수상했으며 「자주빛」이라는 작품을 쓴 앨리스·워커가 흑인으로는 최초로 소설부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의 빌·폴리기자는 베이루트근교 사브라난민촌의 학살희생자 및 생존자들을찍은 사진들로 보도사진상을 받았다.

蘇·베트남무역협정

【모스크바AP=聯合】소련과 베트남은 18일 쌍무무역과 원조부문에 관한 새로운협정에 서명했다고 蘇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의 이같은보도는 中共의 對베트남 「보복」월경 포격에 대한 베트남외무성의 항의가 나온것과 때를 같이한 것이다.

日官房장관 "레프첸코 증언 신빙성 있어"
警察조사후 대처

【東京=聯合】고또오다·마사하루(後藤田正晴) 일본관방장관은 18일 레프첸코 증언이 『그동안의 경찰수사결과 신뢰할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으로써 일본정부가 증언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있다는 자세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팬암、6월臺灣취항

【北京AP=聯合】미국의 팬암항공사는 中共이 美정부에 항의를 제기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6월 대만항로를 재개하기위한 계획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팬암항공사 북경사무소장이 18일 말했다.

조지·블라초스사무소장은 중공이 지난달 미민간항공국에 팬암이 臺灣항로를 재개할 경우 「가치없는 보복」이 뒤따를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人事異動

法務部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韓道熙(青松교도소장)▲大邱교도소장 李廷文(城東구치소장·職代)▲青松교도소장(職代) 金明植(釜山교도소장)▲서울구치소장(職代) 朱炫杜(光州교도소장)▲釜山교도소장 裵應燐(清州보안감호소장)▲安養교도소장 崔宗赫(大田교도소장)▲永登浦구치소장 鄭鍾世(青松제2보호감호소장)▲大田교도소장 劉炳烈(永登浦구치소장) (19日字)

國民銀行

▲후암동지점장 張喜鎭▲포항지점포항남간이예금취급소장 李址杰 (20日字)

◇방콕호스테스 異色시위 방콕시내의 유명한 유흥가인파트퐁街에있는 한 클럽의 호스티스2명이 18일 총선기간중 술을팔지않는다는 표지판을 들어보고이있다. 【방콕18日AP電송=聯合】

英배우 올리비에 "내自叙傳은 솔직"

영국의 원로배우 로렌스·올리비에(75)경은 최근 자신의 자서전『한 배우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자 『자서전이 솔직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올리비에경은 한 여성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美여우 비비안·리와의 전격결혼과 그녀가 지난1967년 결핵으로 사망할때까지 그녀의 성욕, 남편에 대한 불성실성·정신질환등을 이 자서전에서 솔직하게 묘사했다고 웅변。【AP】

海外토픽

中共, 거북화석발견
6천만년전것 추정

중공의 한 농부가 6천만년전것으로 추정되는 다거북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당기관지 인민일보가 17일 보도。

인민일보는 이화석이 安徽省의 潛山縣에서 발견되었으며 길이가 28cm에 폭은 23cm라고 설명。【AP】

加나체주의자 주장 "옷은戰爭의 원인"

코르키·메이라는 이름의 올해 35세된 한 나체주의자는 옷이야말로 전쟁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평화를 위한 연례 나체행진에 반핵지지자들도 나체로 참가할것을 촉구。

『나체평화회』의 회장인 이 사나이는 『탐욕·시기와 더불어 옷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밴쿠버시내에서 벌어지는 이번 행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3만여명의 반핵지지자들도 옷을 벗음으로써 『인간은 옷을 벗으면 평화로와진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UPI】

社說

油價調整과 그 以後
—節約·自立의 奮發 잊지않도록

정부는 19일자정 石油類값을 국내공장도 가격기준으로 평균 4·76% 인하하고 電力요금은 오는 22일부터 평균3·3%내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예상했던대로 국제석유가 인하에따라 국내정유회사들이 벌써부터 적용받고있는 배럴當 평균4·53달러해당의 원유값인하분중 30%정도만을 국내油價에 반영시킨 인하비율이다. 따라서 휘발유와 LPG를 제외한 벙커C油 나프타 중유 경유 등유의 값을 모두 소폭인하 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이에 발맞추어 전력요금도 약간 인하키로 하되, 종래 가정용 요금체계 6단계를 5단계로 줄이고 업무용 역시 5단계에서 4단계로 하여 누진율을 완화토록 정하고 있다. 멀지않아 버스및 철도요금도 다소 인하조치가 있을것 같아 보인다.

引下幅差에서 오는 70%의油價節約分용도에관해서도 대충 이미 알려진대로 조정됐다. 즉 올에조성될 3천3백40억원가운데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되는 1천9백20억원은 수력발전댐 건설같은 전원개발과 석탄비축, 에너지절약사업에 투입하고 關稅징수 1천4백억원은 세수결함 보전에 쓸 예정이라는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油價引下조치는 별로 새로운면이 없을뿐더러 좀더 그 인하폭을 늘려 물가안정과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케 할것을 바라던 일부의 견을 외면한 느낌마저 든다.

정부가 이렇듯 석유값 인하에 신중을 기하게 된 배경은 나름대로 선명한게 있다. 첫째 국제석유값이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는 마당에서 국내가 늘 대폭인하하는것은 현명치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만약 국내가격을 대폭 인하하였을 경우 석유소비를조장시키고, 세째론 그간 전개해온 에너지 절약풍토의 퇴색과 산업구조개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네째, 해외 용역수출의 변동에 대비, 기름값 下落分을 재원삼아 수출산업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해야 할뿐더러, 다섯째 원유가격인하로 말미암은 세수결함에 대처토록해야 한다는 목적과 기도가 서려있다.

우리는 이런 정책적 판단을 원칙적으로 긍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일반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정에서도 여유가 있을때 이를 모두 소비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한후, 필요한 부문에 요긴하게 배분하거나 또는 비상시에 대비하는 여유를 확보하는게 상책이기 때문이다.

석유값하락분의 안분처리에 있어서는 비단 우리뿐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臺灣이나 美·佛·伊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각기 경제실정에 알맞는 留保의충당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나 이油價引下의 큰 轉機를 국내經濟의 안정및 도약의항구적 발판구축기로 삼아야한다는 뜻에서 몇가지 주문을 여기 붙여두고자한다.

우선 석유값이 떨어진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절약적 산업구조개편의 좋은 기회인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조치를 서둘러야한다。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명백한 길인 것이다.

다음 절약에 따르는 忍苦를 견뎌내고 油價인하혜택으로 얻어지는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 다각적 전원개발·독자적인 석유개발사업등, 에너지자립화를 앞당기는데 전력투구해야한다.

혜택이나 기회란 그리 흔하게 오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인하에 들뜨기보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데서 에너지自足·經濟自立의 꿈을 풀도록 모두가 분발해 볼만한 계제라 하겠다.

레바논 美大使館폭파
—잇단 外交公館테러 對策있어야

베이루트주재 美大使館에 大爆發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인 7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39명이 사망하고 1백20명이상이 부상한 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우리는 不可侵權및 治外法權등 外交特權을 누리고있는 大使館에 근래 이처럼 테러리즘에 의한 대참화가 빈번히 일고 있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없다.

70년대로 접어들면서 外交官과 外交公館에대한 테러행동의 빈도가 늘어나고 그사건규모 또한 大型化되어가는 추세는 누가보든 우려치 않을수 없는 일이다. 그 大型化에따른 선의의 희생자수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다.

61년에 맺어진 빈 외교조약은 외교公館은 不可侵이며, 화재같은 긴급사태를 제외하곤 외교사절단의 長의 동의없이 接受國의 官憲이 들어갈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不可侵은 公館뿐아니라 그 用具類, 그밖의 재산, 수송수단, 서류등에도 적용된다.

외교관과 그 公館은 그만큼 治外法權的 보호를 받는다. 한데 작년만해도 터키총영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피살되는가 하면 과테말라 주재 브라질 대사관이 습격당했다. 영국주재 이스라엘대사, 스페인 주재 쿠웨이트대사, 파키스탄 주재 쿠웨이트 총영사대리가 피살되었다.

이번 베이루트 美大使館폭파사건직후 「回敎聖戰기구」라고 자칭하는 한 괴단체가 폭파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한다. 이 단체는 회교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투쟁중이라고 강조하면서, 레바논주둔 미군들에게도 수차례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그테러행위가 회교혁명의 反美主義와 어떤 형태든 연관이 있는듯 하다.

작년가을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레바논철수와 새대통령의 당선으로 레바논에 모처럼 평화의 희망이 피어오를때 발생한 제마옐 대통령당선자의 폭사는 레바논사태를 다시 어둡게 만들었다. 곧 이어 일어난 기독 민병대에 의한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대학살사건은 아무리 테러리즘이 비이성주의에 종속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사람을 깜짝 놀라게했었다.

이처럼 中東에서 빈번히 일고 있는 테러리즘이 어떤 과격파의 소행이라 할지라도 소련의 모종 배후공작이 작용해있을 가능성은 빠뜨려 볼수 없다.

최근요르단의 후세인왕이 레이건의 포괄적中東평화안에 PLO를대표하여 간여하는문제에서 후퇴한후 소련이 中東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極左·反帝·反美이념을 신념으로 하는 테러단체들이 소련및 東歐圈으로부터 자금이나 무기를 지원받고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北韓 또한 제3세계 혁명지원이란 명목으로 中東의 테러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들은 이미 알려진것 처럼 올 가을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IPU(국제議會연맹)총회를 유산시키려고 핀란드주재 北韓대사가 관계요로에 막대한 자금을 뿌린 사건을 저질렀다. 핀란드 신문들은 北韓외교관을 「외교계의 난동자들」이라 불렀다. 저들의 행동이 외교상도를 벗어난 일종의 비이성적 정치테러리즘이란것을 또 한번 지적해 두련다.

政局往來

不動産 투기대책 猛攻

19일하오 국회의 경제분야 질문에서 첫登壇한 趙舜衡의원(民韓)은 『요즈음 국민들 사이에는 「부동산 투기 억울性 울화症」이라는 病이 번지고있다』며 부동산 투기현상을 猛攻.

그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집한칸 마련하려고 정부시책을 믿고 열심히 저축해온 서민들이 맥이풀려 웬일인지 우울하기만하고 울화가 치밀어 나중에는 모든 의욕을 상실하는것이 이 病의 증세』라고 풀이했다.

李龍鎬의원(民正)은 정부의 經濟정책을 「파리채로 파리잡는 정책」으로 비유, 『파리채로 파리를 때리면 딱하는 순간에 모두 도망가고, 소리만 요란하고, 바쁘기만하고남보기에잡힌는것같이 보이지만실은잡히지 않는 것이었다』고 꼬집고 정책수행자들의 形式主義 名分主義등을 불식할것을 촉구했다.

引責주장에 忠告論 펴

朴完奎의원(民韓)은 『부동산투기가 열병에 시달린가 했더니 大盜가 고관의 집을 털었다하면 數億대의 금품과 귀금속이 쏟아져 나오는 이세태는 義의 시대인가 和의 시대인가』고 추궁.

정책의 문젯점을 들어 『최근 농수산부가 「一石二鳥」論을 들어 돼지고기 먹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쇠고기수입을 줄이면서 송아지수입을 더욱 확대, 「一石五鳥」를 거둘용의는 없느냐』고 代案을 제시하기도.

이날 답변에나선 金相浩국무총리는 경제각료인책과 勇退를 주장한 의원들의 물음에 『경제각료뿐만아니라 본인을 포함해서 전국무위원들이 책임지고 전력을 다하라는 충고와 독려의 말씀으로 알겠다』고 간단히 응수.

그는 또 총리의 직책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느냐는 추궁에 대해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정한권한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大 不可思議」발언에 「議題外발언」이라고 停會소동벌여

朴의원은 처음부터 높은목소리로 경제문제를 파헤치다가 『수일전 某재벌아들이 33만달러를 가지고 나가다 金浦공항에서 적발됐었다』며 『지금 우리나라에는 3대 不可思議가 있는데 그것은 시중의 改憲說, 三寶증권문제, 大盜趙世衡이가 특수계층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쳤다는 것등이다』고 설명.

이어 朴의원이 3대 不可思議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하려하자 蔡의장은 『朴의원, 이시간은 경제에 관한 질문시간이니 의제외발언을삼가주시오』라고경고.

蔡의장은『멀리서 따지고 돌려서보면 경제문제라고할지 모르나 정치, 경제, 사회등을 구분해서 질문하는 것인만큼 의제외 발언은 의사록에 수록되지 않으며 이점 유념해 달란』고 계속 경고하자 民韓黨의 趙重衍수석부총무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그대로계속하면되지 무슨 경제문제 云云이요』라고 힐난.

이에 蔡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중지 합니다』라고 선언했다가 『停會를 선포한다』고 停會를 선언.

사태가 눈깜짝할사이에 돌변하자 民正黨의석에서는『왜 의제외 발언을 하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고 民韓黨의석에서는『야당출신 의장이 해도 너무 한다』『이럴수가없다』『수습해야지』『이게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어 『議總을열자』는 주장이 나와 民韓黨의원들은 원내총무실로 몰려갔다。이들이 民正黨의원들은 본회의장과 사이 2층 식당등에서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

한편 柳致松총재는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하는한편 高在清부의장에게 『어느 과목이 구체적인 저축사항인지알아보라』고 지시.

또한 民韓黨의원들은 『의제란 편의상에 분류일뿐인데, 의제외운운은 납득할수 없다』고 비난。

石油값대책 홍보미흡

19일 民正黨의 中執委상임위는 오는21일 黨政정책조정회의에 朴鍾汶농수산 徐相喆동자부장관을 참석시키도록 결정.

이에대해 金璟泰대변인은 『영농자금방출등 농번기의 농촌대책을 논의하고 『油價인하에대한 야당측의문제기에대비, 정부·여당의 정책조정을위한것』이라고설명.

이날회의에서는 『정부측이 국제原油價의 下落分의 국내유가반영도인 「3·7」制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것같다는 自省의 소리도 있었다』고 金대변인이 傳言.

MUNAMI TROPHY & SPORTS

GOLF SALE

여러분들을 더 성심껏 모실 것을 노력하면서 금년에는 좀더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였읍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을 위한 Half Set 7ps. ◇Junior set와 Lady set

◇Lynx, Titleist, Ben Hogan, Power Built, Spalding, Northwestern, Mizuno·등
특히 한국사람에게 적합한, 한국에서 인기있는 "Honma"일체가 준비되어 있읍니다.

◇가방, 장갑, 신발, 모자, Cart 등과 골프에 필요한 악세사리 일체

※새로 시작하시는 분을 위해 기초부터 무료 지도해 드리며 Swing분석 콤퓨터로 여러분의 Swing에 맞는 골프세트를 선사해 드립니다.

Lynx® Etonic® PowerBilt HONMA

무나미
880 ELLESMER RD. UNIT 1
SCABOROUGH, ONT M1R 2W6
298-3584
대표 이 기 훈

"숨가쁜 曲藝"…大盜추격 30분

대낮 지붕위를 平地처럼

"自首하겠다" 순간 銃彈에 맞아

「大盜」는 허명이었던 모양이다. 숨가쁜 추격을 받고 총격끝에 잡히긴했지만 드라머같이 느껴지던 탈주극은 뜨내기잡범의 우발행위처럼 평범한 단막극으로 끝났다.

시민들 "시원섭섭"

지난 14일 서울구치감을 탈주한 趙世衡은 해외탈출 가능성까지 경찰이 생각할만큼 「계획범죄자」인것처럼 보였으나 6일동안 서울을 벗어나지못하고 대낮에 시내를 배회하다 시민에의해 덜미를 잡혔다.

趙의 검거는 6일동안전전긍긍했던 법무부와검찰、경찰등 관계기관들을 안도시켰고 반면 드라머 보듯 흥미를가졌던 시민들을 시원、섭섭케 하였다.

◇최후의 피신처 趙가 지붕과 담을타고 도주한끝에 최후로 金承煥군을 인질로 경찰과 대치하다 총을맞고 검거된 金贊祚씨집 목욕탕(×표)。

奬忠洞골목서 들켜

…신 고… 李元柱군은 이날 모교인 海東상업전수학교 앞 골목길에서 지나친30대 남자가 탈주범 趙라는것을 직감、3백여m를 뒤따라 신문에서본 사진기억을 떠올리며 다시확인한뒤 趙가 다시 골목길로 접어들자 奬忠파출소로 뛰어가 신고했다.

趙는 이날 고급주택가골목길에서 재범할대상을 찾는듯 이집저집을 두리번거리며 서성대고 있었다.

생선회칼꺼내 위협

…출 동… 신고를 받은 朴璐鎬순경(30)과 鄭昊柱순경(35) 등은 가스분사기만 휴대한채 李군、전경4명등과함께 출동、파출소에서 50여m떨어진 막다른골목에서 趙를 발견했다.

이때趙는 경찰의 추격을 받고있다고 직감한듯 길이 30cm가량의 생선회칼을 빼내들고『접근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이웃담에뛰어올라 9집의지붕과 담을 통해 사라졌다.

鄭순경은 한집한집 추적하다 金枝億씨(50·서울中區奬忠洞2가1112의14) 집 화장실에서 신발자국을 발견했다.

이때 鄭순경은 趙가 화장실안에 있는것을 직감하고 파출소에서 권총을 가져오게하고 中部경찰서에 보고했다.

주민귀띔 다시추적

…추 격… 이 시작되자 趙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들이『趙世衡이 잡아라』고 소리쳤다. 趙는 奬忠洞2街114의13 卞淑熙씨(36)집 대문을 통해 들어가 문을잠근후 작은방 유리창을 깨고 지붕을 올라타 날렵한 동작으로 집위를 타기 시작했다.

趙는 이렇게 7집을지나 奬忠洞1112의20 李俊培씨집뒷담을 통해 1112의14 金枝億씨집 뒷담을거쳐 뒷뜰에 내렸다.

趙가 金枝億씨집에 숨어든후에 경찰은 趙의 행방을 놓쳤다가 주민의 귀띔으로 다시 추적했다.

경찰관 1명과 남자5~6명이 몽둥이를들고 왔다가 趙의 모습이 안보이자 되돌아가려하는순간 주민 李基完씨(50·여)가『이집에 숨은것같으니 들어가 보자』고 말해 金씨집목욕탕에 숨어있는것을 확인한것이다.

대학생人質로 대치

…인질·대치… 趙는 金枝億씨집에 들어가기전 옆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의 톱을 빼앗아 드라이버와 생선회칼과 함께 들었다.

趙는 안방에서 쉬고있던 金씨의 부인 朴愛子씨(47)를 들고있던 흉기로 위협、『가만히 있으라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팔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에서 숙제를 하고있던 2남 承煥군(19·明知大건축공학과2년) 방으로 들어간 趙는 朴씨모자를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담요로 덮었다.

대문밖에서 『문열라』는 소리가 나고 떠들썩 해지자 趙는 朴씨에게 『밖으로 나가 아무도 없다고말하라』며 承煥군을 인질로삼아 朴씨를 뒤따라 내려왔다.

朴씨의 거짓말을 믿지않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趙는 承煥군을 목욕탕으로 끌고 들어간뒤 문을 잠갔다.

경찰은 목욕탕문을 두드리며 『자수하라』고 설득했으나 趙는 아무대답도없이 왼손에 생선회칼、오른손에는 톱을들고 대항태세를 취했다.

어머니 朴씨가 가스총을 빼드는 경찰에게 『아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朴순경은 2발을 쐈다.

가스총성을 듣는 순간趙는 『자수할테니 쏘지말라』고 외쳤으나 朴순경은 목욕탕 창문을깨고 2발을쏘았다.

한때중태 병원옮겨

…후 송… 총상을입고쓰러진 趙는 영락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나쁘다는 판정이 내리자 상오10시55분 다시 白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실에서 수혈등간단한 응급치료를받고하오12시50분께 5층A수술실로 옮겨져 신경외과과장 朴孝一(42)박사팀의 집도로 탄환제거수술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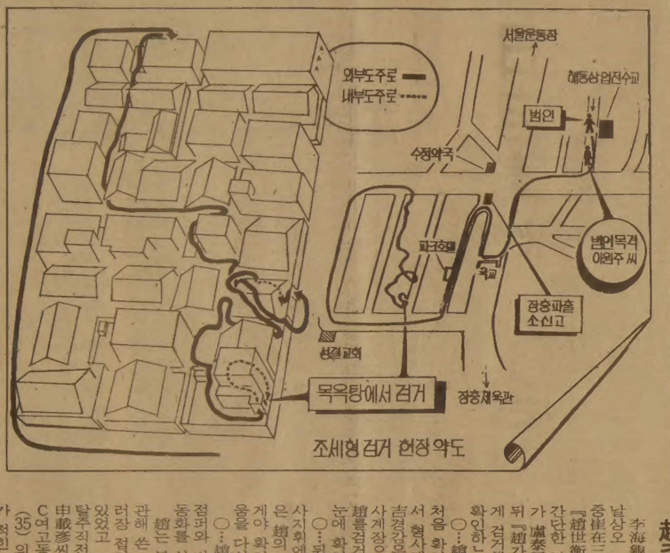
이동침대를 이용、수술실로 옮겨진 趙는 팬티차림에 머리윗부분은 붕대로감겼고 가슴은 파란수건을 덮고있었으며 그위에 흰이불로 다시 덮여있었다.

"2週쯤후면 完治"
白병원、목밑↓가슴 皮下관통傷"

趙를 수술한 白병원의朴孝一신경외과 과장은 『趙의 총상은 왼쪽귀밑7cm아래 목밑에서 왼쪽젖꼭지옆으로 15cm정도 스쳐가는피하관통상을 입었을뿐 다른외상은 전혀없어 2주정도치료하면 완치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수술팀은 趙의 체내에서 총탄1발을 제거하고 5백cc병2개를 수혈하는 한편 링게르 1천cc를주사했다.

趙는 응급처치할때『아프다… 목이마른다』고 말했을뿐 의식은명료했으나 별로 입을 열지않았다고 전했다.



조세형 검거 현장약도

치안본부 "틀림없이 잡았느냐"확인소동
檢擧될 당시 황색점퍼·바지에 흰운동화
趙주머니서 부인 羅씨의 스크랩 여러장

李海龜치안본부장은 이날상오 간부회의를 주재중 崔在三中部서장으로부터 『趙世衡체포했음』이라는 간단한 보고를받고 방을나가 盧泰愚장관에게 보고한뒤 『趙가 틀림없냐』『어떻게 검거했느냐』고 상보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趙世衡이 틀림없고 처음 확인한 사람은 中部서 형사계장 吉秉國경감.

吉경감은 東大門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있던 작년11월 趙를검거한 인연이있어 첫눈에 확인할수 있었다고.

○…뒤늦게 탈주사건 수사지휘에 나섰던 서울지검은 趙의 검거사실도 뒤늦게야 확인、손발이없는 설움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趙는 검거당시 황색점퍼와 바지차림에 흰색운동화를 신고있었다.

趙는 부인羅영씨(34)에 관해 쓴 신문스크랩을 여러장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의(義)동생이며 탈주직전 공판을 방청했던 申載彦씨(30)와 羅씨의 C여고동창생인 李貞玉씨(35)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갖고있었다.

趙가 검거되자 검찰은 이날 상오11시30분 서울지검 특수3부장 宋宗義부장검사와 특수3부 金大雄·鄭烘源검사등이 趙가 치료를받고있는 白병원에들러 趙의 상태와 검거경위등을 보고받은데이어 李鍾南서울지검장등 간부들이 처리방법을 숙의했다.

南大門시장 재단사의 협심강렬한 19세

…신고자… 李元柱군(19)은 지난해 아버지를 여의고 경기南陽州郡에서 소작농으로 어렵게살고있는 어머니 李인섭(59)씨의 2남2녀중 차남.

李군은 서울南大門시장까지 매일출퇴근하며 양복점의 재단보조원으로 일하고있다.

李군이 졸업한 海東학교의 선생들도 의협심이 강한 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固城출신 78년첫발 단칸전세방서 살아

…수훈경찰관… 大盜를잡은 서울中部경찰서奬忠파출소소속 朴璐鎬순경(30)은 경남固城출신으로 三千浦고교를 졸업한뒤 지난79년6월 경찰에투신、明洞파출소등을거쳐 지난해12월31일부터 奬忠파출소에서 근무해왔다.

지난해 4월 결혼、1살짜리 딸을둔 朴순경은 서울東大門區面牧2洞에 있는 2백50만원짜리 전세방에서 살고있다.

鄭昊柱순경(35)도 경남固城출신으로 南海종합고를 졸업한뒤 지난76년12월 경찰에 투신、77년10월 결혼、5살난아들과 江西區鹽倉洞에있는 T연립주택에서 살고있다.

4·19 23돌맞아 各黨서 성명발표

▲民正黨金瑢泰대변인=우리는 不義와 독재에항거한 4·19의 의미와 정신을 엄숙히 되새기며 우리黨5大이념구현에 매진할것을 다짐한다. 특히 모든 민주역량을 선진조국창조를 위해 집결시키는 것이 시대적요청이라고 믿고 이러한 국가목표달성을위해국민적화합을이루어나갈것이다.

▲民韓黨睦堯相대변인=독재정권은 어떤 형태로도 오래 유지될수 없으며 민주국민은 이를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교훈을 4·19정신에서 배워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기회에 정부여당에 이러한 고귀한 4·19정신을 바탕삼아 하루빨리 구석구석에 도사리고있는 維新잔재와 非민주적요소를 제거해 이나라 민주발전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민당金完泰대변인=우리는 4·19의거23주년을 맞아 이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책략이나 4·19정신의 퇴쇠、왜곡함이없었나를 겸허하게自省해야할것이다.

"大盜가 떴다"
趙世衡체포 도운 金東權씨
오토바이로 두 순경 現場안내

또한번 시민의 신고정신이 승리를 안았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해결될때마다 큰몫을 했지만 이번에 大盜 趙世衡의 덜미를 잡은 것은 역시 시민이었다.

趙가 붙잡혔던 현장부근에서 신라문방구점을 하고있는 金東權씨(41·사진)는 지금 한바탕 꿈이라도 꾼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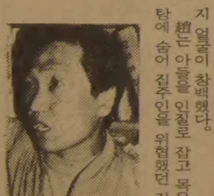
金씨는 이날상오10시2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물건을 하러 가기위해 헬미트를 찾고 있었다. 이때 밖에서 『趙世衡이다』는 소리가 들렸다. 부인裵鍾林씨(37)가 이소리를 듣고 『趙世衡이라는데요』하고 말했다.

이순간 金씨는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뛰쳐나와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장충파출소까지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른다. 순경1명을 오토바이에태우고현장에 내려놓은후 다시 退溪路5街파출소에 달려가 다시 한명의 순경을 태우고 현장으로 달렸다.

이때 趙는 李元柱군의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의 추격을 받고있었다. 경찰관과함께 趙의 행방을 찾아가면서도 李군이 어떻게 趙를 알아보고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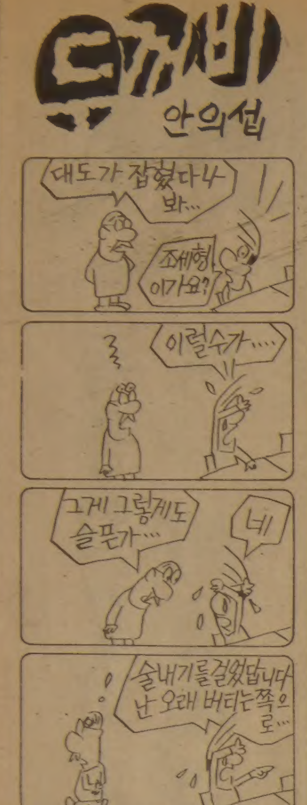
애써 신문에서 본 趙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趙의 모습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높은 집에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니 주위가 전부 웅성거리고 있는데 유독 한집만 조용했다.

경찰관과 함께 대문을 두드리니 안주인이 나와『아무 일도 없다』고 시치미를 떼면서도 어딘지 얼굴이 창백했다.



趙는 아들을 인질로 잡고 목욕탕에 숨어 집주인을 위협했던 것이다. 한동안 경찰관과 趙가 화장실문을 사이에 두고 격투를 벌였다.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총소리조차도 듣지못했다. 趙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야 어렴풋이 총을 쏜것을 알수있을 정도였다. 몸에서 힘이 쑥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허탈감속에서도 신고정신이란 『이런 것이구나』하는 뿌듯함과함께 『만일 李군이 신문에 난 얼굴을보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韓基奉기자】



유흥업소 未成年者 출입
적발되면 業主구속

정부는 디스코클럽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업주에 대해서는 적발되는대로 모두 구속하기로했다.

19일 보사 문교 내무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미성년자유해업소출입금지방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에대해서 과료나 영업정지등 가벼운 처벌을 하던것을 앞으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벌칙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할경우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있는 현행규정을 3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식품위생법도개정、모든 유흥업소업주가 출입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할수있는 조항을신설하며 1차적발때 영업정지 15일인것을 3개월로、2차적발때 허가취소키로 했다.

海軍지휘관 회의

해군은 19일상오 해군본부대회의실에서 吳慶煥참모총장주재로 해군주요 지휘관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괴의 최근정세와 무력도발가능성이 중점논의됐는데 북괴의 대남공작과 해상기습침투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강구했다.

印尼나포 五洋51호 벌금물고 풀려나와

지난8일 인도네시아 領海침범혐의로 나포되어 그간 형무소에 수용돼있던 五洋51호(선장 김영운)선원24명이 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석방교섭으로 벌금 3백29달러만물고 18일 석방됐다고 19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특수逃走罪 추가
無期선고땐 의미없어

탈주범 趙世衡은 특수도주죄로 추가기소된다.

형법 제146조(특수도주)는 『법률에의해 체포또는 구금된자가▲수용설비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사람에게 폭행또는 협박을 가하고▲2인이상이 합동해 도주한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趙는 탈주당일 무기징역과 보호감호10년(예비적청구)이 구형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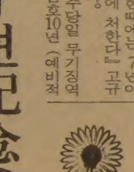
앞으로 趙에대한 확정선고형량이 무기징역이 될경우 추가기소된 특수도주죄는 전혀 의미가 없지만 유기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도주죄에 해당하는 형량이 가산된다.

4·19 23주년紀念式
水踰洞묘소서 8백여명 참석

4·19의거 23주년 기념식이 19일 상오10시 서울道峰區水踰洞 4·19묘소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金璣成부총리·李輔浩원호처장·鄭泰秀문교차관등 정부인사와 4·19의거 상이자회、4·19의거희생자유족회등 관계인사8백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앞서 尹潽善전대통령 金正禮보사부장관、柳致松민한당총재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묘소를 참배했고 많은유족들이 젊은 영령들의 넋을 위로했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週刊한국
•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 김홍신의 「人間市場」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젓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비데오게임 머신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첵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 : 636-0906

일본식당
舞子
HAPPY HOUR
(월요일~토요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초밥 5개 무료제공
☒주류(포도주, 맥주제외) 두잔에 한잔값만
401 BLOOR ST. E
☎967-0922 (블루어×셀본서쪽)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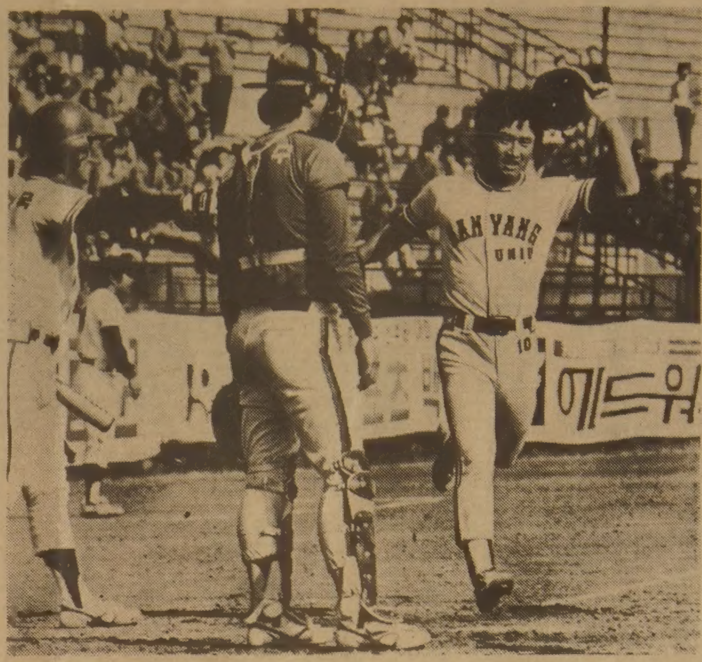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漢陽大가 頂上올랐다

白虎旗야구결승 앞서던 農協에 逆轉勝

폭풍의 7회末… 4점뽑아내
대타 趙龍鎬、황금의 2打點

5-4



◇"신난다"…첫 同點홈인 2회말 좌전안타로 나간 漢陽大의 6번 朴興植이 8번 金相國의 우월2루로 홈인, 1-1 타이를 만들고있다.

漢陽大가 대학야구의 체면을 살렸다. 프로야구탄생후 실질적인 아마 정상의 위치를 차지한 대학야구명예를 걸고 白虎旗패권에 도전한 漢陽大는 7회말 필사적인 추격전끝에 실업의 선봉 農協을 5-4로 꺾고 대회 첫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19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33회 백호기 야구대회결승전서 漢陽大는 의외로 파이팅이 좋은 農協에 고전하다 7회말 2死 만루서 2번 權毛寧의 2타점을 올리는 우중간 동점2루타와 1년생 대타 趙龍鎬의 3루수 옆을 뚫는 주자일소2타점 2루타로 승기를잡아 5-4로 이겼다. 農協은 8회초 6번金承洙의 좌월 솔로·홈런으로 따라붙었으나 승부를 뒤엎지 못했다.

3-1로 뒤지고 있던 漢陽大는 7회말 선두6번朴興植이 데드볼로 나가면서 추격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어 9번 柳仲鎬의 유격수앞 땅볼로 朴이2進한후 8번 金相國도 3루수앞 땅볼로아웃, 득점기회가 무산되는가했으나 9번 金用國이포볼를 고르고 1번金京杓가 3루수앞 내야안타로뒷받쳐주자는2死에 만루.

이어 漢陽大타자는 1회초 중월2루타를날렸던 2번 權毛寧. 農協투수 沈相守의 기묘한 슬로볼에 익숙해진 權은 우월2타점 2루타를때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여기서 農協은 宋容成으로 마운드를교체했으나 대타로나온 1년생 趙龍鎬가 왼쪽 타석에서 빠른직구를 밀어친것이 3루수와 베이스사이를 빠지는 2루타. 漢陽大는 2점을 추가해 5-3으로 앞섰다.

農協은 7회초 3안타로 2포볼로 2점을 빼내 3-1로 앞섰으나 리드를 고수하지 못했다.

◇결승전

농협	0	1	0	0	0	0	2	1	0	—4
한양대	0	1	0	0	0	0	4	0	×	—5

▲홈런=金承洙(8회·농협)

白仁鐵상대 변경 제임스·그린으로 타이틀前哨戰

白仁鐵의 세계도전 전초전 상대자가 바뀌었다. 오는5월20일 미국아틀랜틱시티에서 WBA주니어미들급17위 신·매니언과 전초전을 갖기로했던 白仁鐵은 WBA동급6위이며 WBC10위인 제임즈·그린과 격돌케 됐다.

제임즈·그린(26·미국)은 15승(7KO) 2패로 키1m67㎝. 白은 이 경기서 이길경우 WBA주니어미들급챔피언 데비·무어에게 도전할 계획이다.

伊팀GK조프 은퇴

【밀란(이탈리아)聯合=特】 지난해 스페인 월드컵축구대회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끄는데 공헌했던 GK 디노·조프(41)가 현역서 은퇴한다.

국가대표로 1백11게임에 출전한 조프는 최근 이탈리아팀이 유럽선수권대회서 루마니아에 충격적인 1-0의 패배를 맛본후 은퇴결심을 굳힌것으로 알려졌다.

유벤투수 소속의 조프는 지난 68년4월 불가리아와의 대전을 스타트로국제무대에서명GK로활약했다.

金在博、행운의 決勝打

MBC、三星누르고 單獨선두

프로야구

2-1

金在博이 8회말 천금의 결승타를 날려 MBC靑龍을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 단독선두로 올려 놓았다. 19일 잠실구장서 벌어진 경기서 MBC1번타자 金在博은 1-1로 팽팽히 맞선 三星과의 대전8회말 1死에 주자를 2루에두고 三星좌익수앞에 떨어지는 빗맞은 안타를 날려 행운의 결승타점을 기록했다.

MBC는 金在博의 적시타와 언더·핸드 李吉煥의 호투로 三星을 2-1로제압, 7승5패로 단독 선두를 마크했다.

李吉煥은 이날 4게임에 출장, 8·6회동안 30타자를 산발 6안타, 1실점, 삼진 4개, 포볼 1개로선방하여 금년시즌 3승1패를 기록했다. 李吉煥은 이날 4개의 탈삼진을 추가, 통산 17개를 탈삼진 선두 張明夫(21개)를 뒤쫓고 있다.

양팀은 선발 李吉煥과 權永浩의 호투에 눌려 의외로 빈타를 보였다. 1-1로 맞선 8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MBC 8번 申彦皓가 三星 좌완 權永浩의 초구 한 가운데 볼을받아쳐 중전안타로 승리의길을 열었다.

타율 1할5푼3리로 부진, 신인 金文映에게 우익수자리를 빼앗겼던 申으로서는 회심의 안타였다. 찬스를 포착한 MBC의 白仁天감독은 발빠른 金奉起를 1루대주자로 기용, 9번 金容雲의 보내기 번트로 주자를 2루까지 진출시켰다. 다음 타석에 들어선 金在博은 權永浩와 침착하게 승부를 겨루다 볼카운트 2-2에서 몸쪽으로 파고드는 직구를 강타했다. 타구는 큰 포물선을 그리며 대시해 들어온 三星좌익수 鄭鉉發의 발앞에 떨어졌고 2루주자 金奉起가 홈을 밟아 결승점을 기록했다.

운좋게 빗맞은 안타를날린 金은 빠른발로 2루까지 노리다 홈송구를 포기한 三星외야수에 걸려 아웃되었다. 三星은 4회초 선두1번 張泰洙가 투수강습내야안타로 살아나가 2루에 스틸, 견제구가 빠진사이 3루까지 진출했으며 一死후 3번 지명타자 金漢根의 좌전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19일 전적

◆잠실

삼성	0	0	0	1	0	0	0	0	0	—1
MBC	0	0	0	0	0	1	0	1	×	—2

◇중간 순위 〈19일 현재〉

	팀	승	무	패
①	MBC	7	0	5
②	삼미	5	0	4
②	롯데	5	0	4
④	OB	5	0	6
⑤	삼성	4	1	5
⑥	해태	2	1	4

조명탑

이랬다 저랬다 프로野球경기규칙

승리타점상規定·勝率계산등 不合理드러내

프로야구경기규칙채택과 사용에 혼란이 일고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개인상의 주요부문인승리타점상 선정방법을변경, 아마추어와 함께 사용하던 것과는 판이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혼동을 빚고있다.

지난해까지 프로와 아마가 함께 채택했던 승리타의 규정은 대전했던 두팀의 스코어중 진팀의 총득점을 넘어선 이긴팀의 첫 득점타.

예를들어 A팀이 3회초 2점, 5회초 2점을 얻고 B팀이 4회초 1점, 5회말 1점을 얻어 A팀이 4-2로 승리했을경우 A팀의 3번째(5회초) 득점타가 승리타점(결승타점)이 된다.

83년 KBO가 채택한새 방법에 의하면 A팀이 계속해서 리드를 지켰기때문에 A팀에 처음 리드를 안겨준 첫(3회초) 득점타가 승리타가 된다는 것이다.

KBO의 새룰채택에 따라 프로야구의 82년 승리타점상과 83년 승리타점상, 그리고 프로와 아마의 승리타점 성격이전혀 달라지게되었다.

KBO는 새 방법이 야구본바닥 美國의 룰을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프로야구는 두번째 시즌을맞은 지금까지 독자적인 룰북을 만들지 못한 상태다.

KBO는 팀승률계산방식에서도 불합리한 방법을 채택, 팀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전·후기시즌의 순위를 가리는 승률계산에서 勝수를 勝수+敗수로 나누도록해 15회전까지 기록된 무승부경기는 무시되고있다.

15회까지 연장전을 가져야한다는것도 선수 부족의 형편을 감안할때 무리한일일뿐더러 고생끝에 얻은 무승부가 승률계산에서 누락된다는것은 해당팀에 피해를 강요하는 불합리한일이다.

KBO는 승률계산 역시 日本방식을 따른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日本은 연장경기의 경우 3시간을넘지못하도록 하고있다. 美國프로야구에는 무승부 게임이없다. 【方錫帥기자】

87회 보스톤마라톤

美베노이트、2시간22분42초기록 女子마라톤 世界新

◇베노이트

【보스턴18日=UPI聯合】美國의 조안·베노이트양(25)은 18일 열린 제87회 보스턴마라톤서 2시간22분42초를 기록, 뉴질랜드의 앨리슨·로가 수립한 여자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17일 열린 런던마라톤서는 노르웨이의 그레테·바이츠가 앨리슨·로의 기록과 타이기록을 수립한바 있다.

보스턴대학 코치인 베노이트는 8㎞지점부터 라이벌 앨리슨·로를 따돌리기 시작, 24㎞ 지점서는 3～4백m 앞선후 독주끝에세계최고기록으로 우승했다.

한편 남자부서는 그레그·메이어(미국)가 2시간9분F로 우승했고 론·타브가 2시간9분31초로 2위를 마크했다. 보스턴·마라톤서 네차례 우승했던 빌·로저스는 2시간11분58초로 10위에 머물렀다.

◇기록

▲남자=①그레그·메이어(미국) 2시간9분F ②론·타브(미국) 2시간9분31초 ③벤지·더덴(미국) 2시간9분57초

▲여자=①조안·베노이트(미국) 2시간22분42초 ②자크린느·가로(캐나다) 2시간29분27초 ⑧메어리·세아(미국) 2시간33분23초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道公、日팀에 逆轉敗

韓日여자배구 3强戰 콤비플레이 亂調로

2년만에 재개된 韓·日여자 실업배구3강 정기전 첫경기서 한국의3위 道路公社는 일본2위 유니티카에 3-1로 역전패했다.

19일 장충체육관서 한국의 美都波 道路公社 韓一合纖, 일본의 유니티카 도요보 가네보등 6개팀이 출전한가운데 개막된 첫경기에서 道公은 첫세트 3-8로 뒤지다가 黃淵順 崔潤子등이 공격과 블로킹서 맹활약, 2차례의 듀스끝에 첫세트를 따냈으나 콤비난조로 역전패했다.

일본대표팀 주전세터 오가와와 왼손잡이거포 민즈하라의 은퇴로 전력공백이 생겼던 유니티카는 한국계인 오기하라(173㎝)의 안정된토스와 끈질긴 수비로 道公에 눈물을주었다.

道公은 元求講 李文姬의 더블세트 시스팀으로 맞섰으나 서브리시브가 불안해 빠른 플레이를 만들어내지못했다.

◇제1일전적

유니티카 3 (15-6, 15-6, 15-8, 15-17) 1 도로공사

世界탁구선수권 한국代表團결성

대한탁구협회는 18일 오는 28일부터 5월9일까지 東京에서 열리는 제37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 파견한국대표선수단으로 확정, 발표했다. 선수단은 21일 하오2시 동아건설 회의실에서 결단식을갖고 25일출국한다.

◇선수단

▲단장=金光昌▲회의대표=朴聖仁, 朴道天▲감독=金昌濟▲코치=金忠勇, 尹相汶▲선수=金浣, 金琦澤, 朴利熙, 尹吉重, 權五澤, 李昌勳, 安宰亨(이상 남자) 安海淑, 尹環美, 梁英子, 金貞美, 李美雨, 申得花, 白良美

땅끝에서오다

金成一 作 <37>

입준호는 드디어 이세원의 아파트앞에서게되었다. 이제 저 현관을 들어서서 계단을 두번 올라가면 이세원의 집이있고, 벨을 누르면 문영실이 나오는것이다. 304호. 이세원의 주소는 304호로 되어있었다.

『304…어디서 많이들어본것같은 숫자로군』

준호는 이내 그것을 깨달았다. 이세원이 탑승할예정이었던 비행기가 JL404였던것이다.

『304、304、404、304、404…』

1982년은 처음부터 알수없는 숫자들로 시작되고있는 것같았다. 통 뭐가뭔지 갈피를 잡을수가없었다. 마구 처음과 끝이 얼클어져 있었고 이것과 저것이 얽클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또다시 저요미우리 신년호에 실려있던 미하이·스타네스쿠의 작품「벽」이 떠오르고있었다. 모든 인간들은 벽속에서 살고있다. 아파트의 벽、생각의 벽、숫자의벽、시스팀의벽 그리고 시간의벽…수많은 벽들속에서 인간들은 마침내 갈피를 잡을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고있는것은 아닐까. 벽과 벽의 거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져서 마침내 빠져나올수없는 미로(迷路)가 되어버린것은 아닐까.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쥐의 생리에 관한 실험이야기를 그는 문득 생각해 내었다. 일정한 면적속에 쥐를 가두어놓고 번식시키면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번식해 나가다가 마침내는 그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쥐들은 자살을 시작하고 급기야는 그 수가 반으로 줄어버린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논리로 인간생존의 한계를 인구 수와 관련하여 전산(電算) 했더니 마침 그 한계점이 서기 2020년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그래도 그숫자가 저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다는 1999년 보다는 약간의 유예가 있었지만 은근히 기분나쁜 결론임에는 틀림 없었다.

『지금도 나는 미로(迷路) 속에 서 있는 것이다。내가 어찌하여 이 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서 있는 것인가』

언제고 퇴근시간이면 이세원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나타났었을 것이다. 그는 저 현관을 열고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갔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피곤한 몸으로 벨을 눌렀을 것이다. 그러면 허리에는 손바닥만한 행주치마를 두르고 소매를 걷어올린 그 아내 문영실이、부엌에서 바로 나왔기때문에 물기있는 손으로 도어를 열었을 것이다. 집으로 들어서는 이세원、저고리를 벗는 이세원、그리고 그것을 받아거는 문영실……그리고 그녀는 말했을 것이다. 목욕물을 받아놓았으니 어서 목욕을 하라고、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수제비를 준비했노라고。

(…그가 수제비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던가?)

언젠가 그는 점심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어렸을때 그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언제나 할머니가 뜯어서 끓여주는 수제비만 먹고 자랐노라고。그래서 지금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수제비에대한 향수가 남아서 수제비 많은것을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목욕을마친 이세원은 아내와함께、그 아름다운 아내가 예쁜손으로 뜯어서 만들어준 수제비를 즐겁게 먹으며 돌아가신 할머니를 추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張吉山 <1720>

黃晳暎 作
崔然石 畫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80)

계손은 반닫이 속을 뒤적여서 책 한권을 꺼냈다.

『거기 점고된 것이 이번에 굿에 오기로 응락한 계원들입니다』

여환이 대강 눈으로 짚어보니 재령과 신천이 평야지대라 물산이 많아 그런지 십여명이 넘었고 평산 신계 서흥 봉산에서도 각각 십여명, 그리고 안악 문화 은율 송화 장연 등지에서 오륙명, 끝으로 강령 배천 연안이 한꺼번에 이십여명이 되었다. 전성달이가 아는체를 하였다.

『설명을 보아허니, 예전 사선골 살던 동무들이로군. 그래서 머릿수가 많은 모양이우』

『맞소, 사선골 살던 이들이 시방 강령에 몰려 살지요. 동접이라 예전 살던 곳도 찾아볼겸하여 서로 식구가 온통 나서겠다는 것을 실제 계원으로 쓸모 있음만한 이들로 추린 것이지요. 배천연안서 오는 이는 예전에 나와 함께 해주 교방 밥을 먹던 잡이 동무들이고…』

『그이들이 입대에서 모두 신도들을 이끌고 있겠지요』

황회가 말하였고 오계손이 답하였다.

『그렇지요. 대개들 작으면 동네 서넛을 맡고, 크면 대처나 군이나 동네가 열군데는 되겠지요』

여환이 속으로 대강 추려서 짐작해 보는데, 백여명이 조금 못될듯하였다. 이들 무계(巫契)는 거의 해서 전역에 걸쳐있는 연계였다. 한양이 뒤집어졌다는 풍문만 전해지면 그들을 동원하여 군과 감영을 점령하기란 손쉬운 일이었다. 진인(眞人)께서 이미 한양성내에 자리를잡았다는소문이 나고보면 천민들은 제각기 자기 고을에서 양반들을 들이칠것이고, 저들은 서로한병을 일으킬틈도 없게될 것이다.

이튿날 식전에 여환 황회 전성달은 소매를 나섰고, 오계손은 재령 계원들과 봉산 계원들이 온는것을 기다려 뒤에 사선골로 찾아오기로 하였다. 그들은 은율 내고개를 넘어서 이미 노루 꼬리만한 겨울 해가지고나서야 사선골에 당도하였고 깊은 골짜기에는 불빛 한 점 보이지를 않았다. 동네에 들어서자 전성달은 예전부터 탑고개서사선골로 자주 마실을 다녔으니 길이 눈에 익어야겠는데 도무지 사위를 분간할 도리가 없었다.

『이거 원, 이렇게 달라지다니. 길이 있어야 갈게 아닌가』

그도 그럴것이, 깊은 마른 풀과 갈대로 뒤덮였고 돌담은 무너졌으며 집의형체를 알아볼수가 없었다. 먼데 산에서는 밤 새가 울었고 스산한 바람이 골짜기 속을 스쳐왔다. 여환은 이리 저리 살피는데 먼데서 뭔가 불빛한점이 보이더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환이 그쪽으로 나서면서 일행을 끌고갔다. 황회는 발을 헛디뎠는지 앞으로 고꾸라져서 무릎이깨어졌다. 이런 낭패가 없었다.

『어이』

하고 입가에 손나발을 대고 여환이 외치니 불빛은 일렁이며 다가왔다. 그들은 잠시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

『거기 누구셔요?』

원향의 목소리였다. 여환은 치켜 올려진 관솔 횃불 아래로 흰 소복을 입은 원향의 모습을 보았다.

『나다…여환이다』

원향이 그제사 잽싼동작으로 갈대를 헤치고 다가들었고 세 사람은 엉거주춤 일어섰다.

『거기는 개천 자리여요. 겨울이라 물이 말랐지요. 이리루 올라 오셔요』

한국女子 하키팀 짐바브웨에 憤敗

【콸라룸푸르(말레이지아)=聯合】한국은 18일하오 칠라터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회 인터콘티넨틀컵 세계여자하키선수권대회 5～8위전에서 모스크바 올림픽 金메달리스트인 짐바브웨에 2～1로 패했다.

스포츠短信

◆…프로 야구팀 MBC 青龍의 1루수 金容允(28)이 「김바위」로 이름을 바꾸었다. 金容允은 그동안 같은 MBC의 같은1루수인 金龍達, 포수 金容雲등과 이름이 비슷해 다소 혼동을일으켰으나 지난 3월30일 大田지법 江景지원의 허가를받아 한글이름 「김바위」로 개명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영원히 기억에 남을 관광은 "코라메"뿐입니다!

매년 1,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감동시키는 나이아가라 폭포, 신의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1,000 ISLANDS(천섬), 30,000 ISLANDS((3만섬) 등 ONTARIO및 TORONTO의 볼만한 곳을 찾아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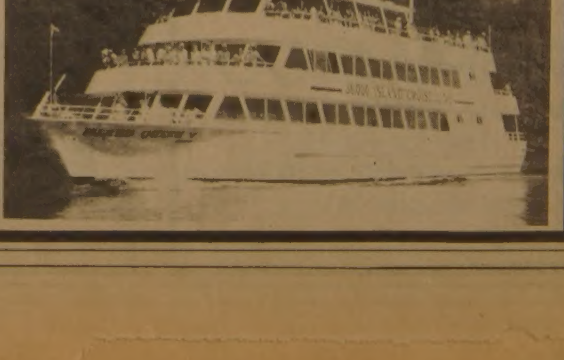
●일일관광 안내(3인이상 출발)

○나이아가라 폭포(매주 월·수·금요일): $35
○1,000 ISLANDS(매주 화요일): $45
○30,000 ISLANDS(매주 목요일): $45

*30,000 ISLAND는 6월부터 시작합니다.
*출발시간은 아침 9:30.
관광비용에는 왕복교통, 친절한 관광안내, 유람선 승선비, ROCK TUNNEL 입장료(나이아가라 폭포)등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개인및 단체관광, 기타 관광지(휴양지, 모텔)에 관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취급업무〉

●기타 관광명소 안내
(여객유람선관광및 대륙횡단 철도관광등)
●공항 픽업 업무(환송및 마중)
●MESSENGER SERVICE(신속정확한 DELIVERY)



코라메관광
649A BLOOR ST. W. TOR. ONT. 함 영 호
(제일여행사 옆사무실) (416)535－0853 (R)265－4842

한국일보

大邱「고고클럽」불 25명死亡

어제새벽 2층천장서 發火、거의 10代…67명重輕傷

【大邱=임시취재반】경북大邱의 도심 고고클럽에서 불이나 청소년 1백여명이 숨지거나 중경상을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18일새벽 1시30분께 大邱市中區香村洞51의7 고고클럽 초원의집(주인 金炳洙·38)에서 불이나 술을마시고 춤을추며놀던 정남희양(18·倭館순심여고2년)등 25명(남8·여17)이 숨지고 6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고교생등 10대미성년자들로 교복및 머리자율화이후 고고클럽에서 발생한 첫대규모사고를 당한것이다。

이날 불은 건물 2층인 초원의집 천장에서 발화、무도장등 홀1백15평과 1층 쌍쌍클럽(1백여평)등 모두2백여평을 태우고 1시간30분만인 이날 상오3시께 진화됐다。

이날사고는『불이야』하는 고함소리와함께 전등이 꺼지면서 춤을추거나 술을마시던 남녀 1백50여명이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경사45도의 단하나의 출입구계단으로 한꺼번에 몰렸다가 그중 1명이 넘어져 뒤따르던 사람들이 포개지는 바람에 희생자가 많았으며 여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사망자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사망자유해는 大邱東山병원、慶北大의대부속병원、大邱시립병원등에 분산 안치됐으며 부상자들은 慶北大 의대부속병원과 東山기독병원 郭병원 가톨릭병원등 4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다。

◇임시 취재반
▲사회부=李鍾九 朴珍列 金宗來 鄭在龍기자 ▲사진부=李昌淳 朴泰弘 金龍逸기자

◇사망자명단

▲이진영(17·大邱공고전기과1년 東區용례1동) ▲이원지(19·여·壽城區壽城1街109의14) ▲윤경애(18·여·동신산업공원) ▲정남희(18·여·倭館순심여고2년) ▲이수옥(18·여·大邱제일여상야간부1년) ▲김향숙(18·여·회사원 北區山格1동1186의50) ▲문무순(21·여·星州郡大家面玉星1洞173) ▲김영신(20·여·만포장식당종업원) ▲배득용(18·達城고2년 南區송현동819) ▲金향숙(18·여·학생) ▲전해영(18·남·학생) 東山병원 ▲宋炳泰(19·대성공고3년) ▲李윤순(21·여·大邱中區香村洞 대왕여관 종업원)

소방서장 職位解除 中區廳 위생과장도

大邱市는 18일 초원의집 화재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규섭 大邱소방서장과 大邱중구청 임영규위생과장을 각각 직위해제했다。

油價 평균 4·76%引下

오늘부터、벙커C 7·5 나프타 5·2

電氣料 22일부터 3·3%

19일 0시를기해 국내석유제품가격이 평균4·76% 인하됐다。

인하된 석유제품은 ▲벙커C油가 평균7·5% ▲나프타 5·2% ▲등유 2·2% ▲경유 2·1% ▲아스팔트3·8%등이며 휘발유와 LPG는 이번 가격인하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격조정으로 벙커C油는 ℓ당 현행 2백4원10전에서 1백90원61전으로 13원49전이 내렸고、나프타는ℓ당1백55원35전에서 1백47원25전으로 8원10전이 인하됐다。 등유는 ℓ당 2백97원에서 2백91원으로、경유는 2백83원에서 2백77원으로 각각 6원이 내렸다。

또한 발전용주연료인 벙커C油의 인하에따라 오는 22일0시부터 전력요금도 평균3·3% 내리게된다。

전력요금은▲가정용5·2%▲업무용6·3%▲소동력산업용6·5%▲가로등 8%씩 각각인하된다。

동자부는 18일 국제원유가격 인하에따른 국내석유제품및 전력요금 조정내용을 확정、국내도입원유 복합단가 인하분 배럴당 4달러53센트중 30%인 1달러36센트만을 국내가격조정에 반영하고 나머지 70%인 3달러17센트중석유사업기금으로 1·72달러、관세 1·45달러씩 각각 사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土地재산稅 누진重課

政府、不動産투기 長短期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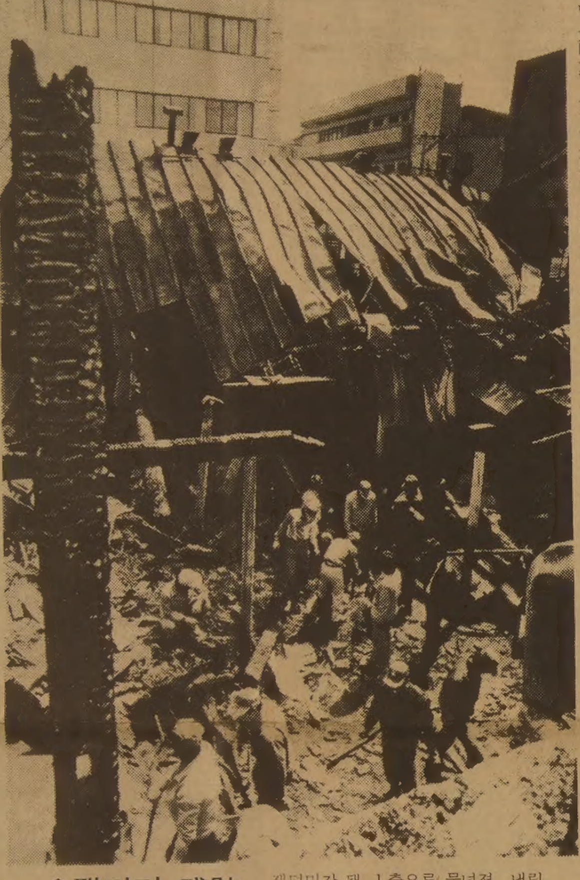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일부조정, 1가구1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6개월이상살거나 살지않더라도 2년이상 소유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물지않았으나 앞으로는 1년이상살거나 3년이상 소유해야만 면세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년 3월까지로 돼있는 양도세탄력세율과 신축주택에 대한 5%의 특례세율도 적용기간을 오는6월말까지 (단25·7평이하 국민주택은 탄력세율계속적용) 앞당기기로 했다。〈해설및 문답풀이 3면에〉

1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에 의하면 현행 주택분양제도일부 바꿔、재당첨금지기간을 공공아파트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매금지기간(공공아파트)도 서울지역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했다。

새로바뀐 양도세제와 분양제도는 관계법시행령등이 개정되는대로 곧 시행된다。

장기대책으로는개인별로 토지보유현황을파악、보유분전체에대해 재산세를 누진율로 중과세하는 토지종합재산세제를 새로 도입하기로했다。



◇잿더미 殘骸 잿더미가 돼 1층으로 무너져 내린 초원의 집。불이 났을때 디스코 홀 안에는 10대가 대부분인 손님들이 춤과술과 음악에 정신을 빼앗겨、대피권유를 듣고도 미적 거리다가 인명피해가 컸다。【임시 취재반찍음·본사 피이퍼機 공수=呂奉吉항공부장 조종】

"고액私債 색출해 徵稅"

國會、經濟문제 對政府질문

국회는 18일하오 본회의를 續開、經濟분야에 대한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19일에도 경제관계질문을 계속한뒤 20일부터는 사회분야의질문에 들어간다。

이날 첫질문에나선 李與鎔의원(民韓)은『우리나라 上位소득층 10%의總所得이 下位소득층40%의 총소득보다 많고 각종투기가 물의를빚어 국민의 불만과 違和感을 조성하고 있다』면서『이의 근본적인 해소를위한 長·短期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1백개 大企業중 2世들에게 실제로 相續됐거나 贈與된 재산내용、그에따른 상속·증여세가 부과·징수된 내용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曺德鉉의원(국민)은 공공요금豫示制 실시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위한 2重穀價制의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또『토지와 주택의 公概念을 도입、토지소유上限線을 제한하고 6·28조치로 혜택을 본 대기업의 金融資産실태와 사회에 환원시켜서민주택건설에 投資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나선 金相浹국무총리는『현단계로서는 경제운용계획을 修正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있다』면서『原油價 인하에따른 各國의 대응책과 국제交易전망을 감안、추후修正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姜慶植재무장관은『地下경제에 대한 규모를 파악、국세청에 우수요원을 선발、합법적인 징세를 위해 專擔班을 편성해 高額私債업자를 색출하는등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금년엔 間接稅부문에서 稅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社告

오늘부터 全面확대

한국일보 活字가 커졌읍니다

字型 19% 늘려 國內선 최대

새 活字…새 한국일보

한국일보가「읽기에 가장 편한」、「눈에 가장 좋은」신문이 되었읍니다。오늘(4월19일)을 기해、한국일보의 本文活字가 全面에 걸쳐서 커졌읍니다。전세계적으로 신문의 可讀性을 높이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룩한 이같은 活字개혁은、창간29주년을 앞둔 한국일보社는 물론、올해로 1백년을 기념하는 한국신문史에 있어서도 매우 뜻깊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오늘부터 全面使用에 들어간 한국일보의 새 活字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80년초부터 3년여동안의 준비작업끝에 완성한 것으로서、국내외에서 진행되고있는 可讀性연구성과를 종합하였을뿐만 아니라 眼科學的、印刷美學的 검토를 거친 우수한 字型을 자랑합니다。이 새 活字는 이미 지난2월27일字부터「社說」「메아리」등의 고정칼럼에 시험사용하여 한국신문으로는 최초로 可讀性 提高에 앞장선바 있었읍니다。

눈에 좋은 신문 읽기 편한 新聞

새 活字는 종전의 활자가 가로2·80㎜、세로2·24㎜인데 비해 가로3·05㎜、세로 2·44㎜로 커졌으며、글자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으로는 종전 6·26평방㎜에서 7·44평방㎜로 무려 19%가 늘어났읍니다。따라서 종전의 1단13배는 1단12배로、1단1백11행은 1단1백2행으로 되어 수록記事量의 약간의 감소가 불가피해졌으나 題目크기의 조절과 간결하고 요령있는 기사작성、정보의 정확한 選別작업을 통해 정보의 전달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저희 제작진의 自信입니다。

젊은 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近視人口와 老齡세대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老眼人口 모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현재 視力이 좋은 세대」를 위해서도 보람있는 기여를 하게될「새 活字、새 한국일보」에 讀者 여러분의 격려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社会漫評

계속 霧中…

地平線

「龍虎상박」의 대결이란 표현은 우리 國技인 씨름에 썩 잘어울린다。두 力士가 서로 샅바를 맞잡으면 태산이 버티고 선듯한 위압감을 느낀다。그러면서 승패는 벼락치듯 외마디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끝나 버린다。얼핏 싱거운듯한 한국씨름의 묘미가 여기에 있다하겠다。이전통의 민속스포츠가 프로化되어 첫선을 보였다。한판 한판의 경기내용도 치열했고 관중의 호응도 한 뜨거웠다。

▼여의 그네뛰기와 더불어 씨름은 삼국시대부터 전해 오래된 민속행사다。19 0 5년 만주에서 발견된 고구려의「씨름벽화」는 1천5백여년전에 벌써 크게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려주었다。문헌상으론 고려사에 단편적으로 적혀있다。충숙왕재위중 1 3 3 0년의 기록엔 임금이 정사를 제쳐두고 小童들과 씨름을 즐겨 아래 위의 예절이 없어졌다고 개탄했다。

▼조선조에 들어 씨름의 열기는 더해왔다。음력 5월 단오절에 즈음해선 전국에서 대회가 열렸다。동국세시기에 나오는 묘사는 오늘의 씨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상승 장사의 호칭은「都結局」으로 불려졌다고 한다。힘이 세고 손발이 빨라 연전연승을 거듭해、더 당해낼 사람이 안나오면「판막음」을 한다。都結局은 이런 최후의 승자다。중국에서 씨름을 高麗技라고 한것을 보면 얼마나 성했나 쉽게 짐작이 간다。

▼우리나라 씨름은 원래 세종류가 있었다。샅바를 오른쪽과 왼쪽 다리에 끼는데 따라 왼씨름과 오른씨름으로나뉜다。허리에 띠를 하나만 매고 그것을 잡고 하는 띠씨름은 충청도 지방에서 유행한것이다。역시 격투기인 탓으로 옛날엔「致死」사고가 있었다。조선明宗때엔 한동안 금지령이 내려졌다。

▼새로 출범한 프로씨름은 한해 천하장사대회 두차례 월별체급장사대회 9차례를 벌인다。이대회를 모두 휩쓸면 5천여만원을 번다。한국씨름은 현대 스포츠로 발전 시키면서 민속의 전통을 지켜가야 옳을 것이다。앞으로 서울에서 열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등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된다면 이「한국技」의 국제화도 기대해봄직 하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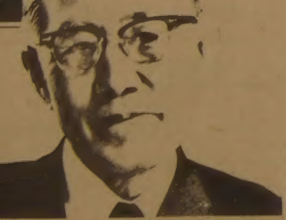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한국선교100주년기념
준비연합성회



강사：한경직목사

할렐루야！

1984년도 한국선교100주년을 마지함에 앞서 카나다전역에 계신 전 교민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새로운 선교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사업회 총재로 수고하시는 한경직목사님을 모시고 뜻깊은 준비연합 성회를 개최하오니 다함께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시·1983년 4월29일(금), 30일(토), 5월1일(일) 오후7시30분

□장소：한인장로교회당(전화：762—1495)1183 DAVENPORT RD

□주최：한국선교100주년기념성회준비위원회　□후원：토론토한인교역자회

한국선교100주년 토론토기념사업회

자문위원: 최사철, 양세주·서금찬, 여웅순·강인범, 백낙순·박경남, 김중환

대회장: 계화삼 목사

실행위원: 장세택·홍중표·박회민·안병한·정태진, 최상봉·이필주·김용출·윤수복

기념전도성회	학술강좌	청소년대회	기념사업
위원장 김재광	위원장 이상철	위원장 홍신웅	위원장 김용진
박춘하	조남유	이정춘	차주성
조이식	김상호	김요한	김원정
조창환	김익선	유재신	
정관일		김경진	서인구
조성관		김택규	
권순국	반병섭		
장은덕			

대 회 장：계화삼 목사
부대회장：박회민 최상봉 목사
준비위원장：김재광목사
총 무：조이식목사
예비위원：조창환 목사
홍보위원：장은덕 목사 심상대
회 계：고성원,안정식
재정위원：구연원, 전태균, 이춘희, 조두현, 홍중표
안내위원：강대길, 이찬진
음악위원：박재훈, 권순국
동원위원：정관일, 조성관, 김희학
섭외위원：박춘하, 조진동
부녀위원：윤수복
청년위원：정 호 영
학생위원：John·리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大盜」탈출 외부共犯 둘이상

"韓一병원앞서 함께 뛰는것 봤다" 목격자 나타나

趙世衡(39) 탈주사건수사본부는 18일 趙의재판을 방청한사람이 의(妻)동생 申載彦씨 (30)외에 梁炯淑씨 (32·공범鄭允觀의처)와 李貞玉씨 (35·서울長安洞長安아파트) 등 2명이 더있다는 새로운 사실을밝혀내고 이들3명이 탈주공모의 열쇠를 쥐고있을것으로보고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趙는 지난15일하오에도 梁씨집에 4번째 전화를걸었으며 탈주당시 韓一병원 후문에서 『공범으로 보이는 2명과 함께 뛰어가는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나타나 적어도 외부에서 도운공범이 2명이상이 되리란 그심증을 굳히고 있다는것。

또 수사본부는 서울구치소및 옛安養교도소 수감때의 면회자와 감방동기등 30여명에 대한 연고선 수사도 펴고 있으나 단서를 잡지 못했다。

趙가 탈주하던날 재판을 방청했던 3명중 梁씨는 趙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12월13일부터 탈주전날인 4월13일까지 10여차례 면회를 했고 또 趙가 탈주후 4번이나 전화를 받았으며 두번째 전화에서는 申씨의 전화번호를 물어 趙와는 남다른 연고를 맺고있는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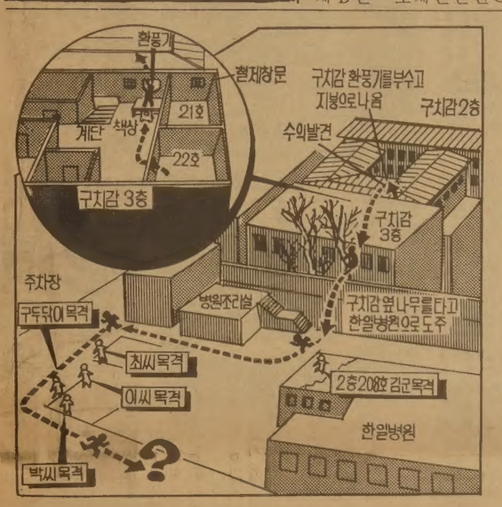
한편 趙의처 羅英씨(35·홍콩체류)와 C여고 동창생인 李貞玉씨(35·이혼녀)는 羅씨의 여권신청때 신원보증을 섰고 申씨와는 의남매사이로 수사본부는 趙의 은신처와 도피자금제공의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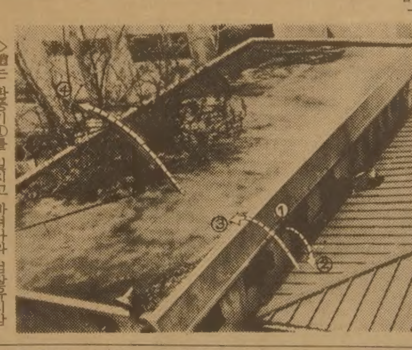
또 申씨는 현재살고있는 서울 江南區三成洞 AID 18동아파트를 趙와 의형제를맺은 직후인 지난해10월말께 서울 墨洞 집을 팔고 趙의 돈을받아 샀다는점을 들어 탈주를도왔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있다。

수사본부는 羅씨가 지난 1월말께 출국전 盤浦洞주공아파트 전세금을찾은 1천9백만원중 申씨를 통해 梁씨에게 3백만원을 주었다는 새로운사실을 밝혀냈으나 梁씨는 『돈은 받았으나 일부는 생활비에 보태쓰고 일부는 의리와양심상 趙를 면회하는데 썼을뿐』이라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따르면 趙는 15일밤8시25분께 梁씨집에 네번째 전화를 걸어 『수민이엄마 1년만 고생하시오。나는 남쪽으로간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는것이다。

한편 羅씨는 또출국전 3백만원을부산에있는여동생 (31)에게 주고간것으로밝혀졌는데 동생은 『이사비용으로 주고 갔었으나 나중에 인편을 통해 언니에게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趙는 환풍기①를 밀치고 빠져나와 검찰유치감 2층지붕 ②으로 내려서서 미결수복 상의를 벗어던졌다。趙는 다시 구치감 3층옥상 ③으로 올라가 한일병원담사이에 뻗어있는 오동나무 ④를타고 병원뒷마당으로 내려가 배재고쪽 병원후문을 통해 달아났다。

◇梁炯淑씨

구치감門 안잠가

부탁받은 교도관등 3명파면

趙世衡의 탈주경로및 추적수사를 지휘하고있는 서울지검수사본부 (본부장黃吉秀 제3차장검사)는18일 탈주현장답사와 교도관및 재감자에대한 조사결과 趙가입감됐던 구치감 3층 22호실의문이 잠기지 않았었다고 밝혔다。【관련기사10면】

검찰조사결과 趙의 입감당시 3층담당 교도관李忠雄씨 (39)는 서울지검에 다른 피고인을 호송하러갔고 3층감시업무를 李씨로부터 부탁받은 2층담당교도관 金大敎씨(45)는 趙를포함 피고인5명을 22호실에 입감시킨후 빗장을걸지않았다는것이다。

검찰은 또 趙가 수갑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못했으나 포승은 단독포승한 趙가 수갑을푼직후 직접 앞에서 풀었음을 趙가 버리고간 포승의 매듭상태에서 확인했다。

비슷한자 光州출현

지난15일 證心寺서 "머물겠다"사정

【光州】전국에 지명수배중인大盜趙世衡과비슷한30대 남자가 지난15일 하오 光州市東區鶴雲洞證心寺에 나타났다는 신고에따라 경찰이 긴급수사에 나섰다。

이같은 사실은 證心寺주지 徐南賢스님 (31)이 18일 光州경찰서에 신고해와 밝혀졌다。

徐주지에따르면 지난15일 하오5시30분께 光山郡飛鴉面에서 왔다는 35세에서 37세가량으로보이는 장발의 남자1명이 술에취한채오토바이용헬미트를들고 밤으로 찾아들어와 이절이나부근절등에있게해주거나 중이될수있게해주면사례를 하겠다고말했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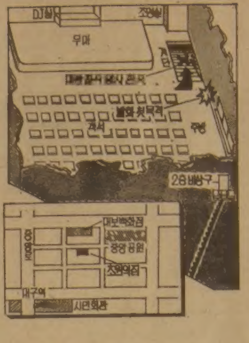
끝내 慘禍부른「靑少年방종」

뒷문까지 닫아놓은 商魂

좁은계단 당기고 밟히고…被害늘어

大邱 고고클럽 火災

◇煉獄…그뒤　25인의젊음을 앗아간초원의집 火災현장에서 시체를 끌어내고있다。비상구가없어 창을부수고 이웃건물 屋上을통해 어려운 작업을 벌이고있다。【18일大邱=聯】



【大邱=임시취재반】철야의 새벽술과 분위기와 음악, 그리고 디스코에 취한 10대주축 손님들의 이상은 마비돼있었다。『불이야』소리와함께 전기가나가자 즉시 무질서와 혼란이 엄습했다。

단하나의 출입구를 향해 너도나도 밀치고 당기고짓밟으며 몰리는바람에 피할수도 있었던 귀중한 인명피해는커질수밖에없었다。

자율화바람을탄 10대의 지나친 자유분방, 그런 10대를 노리는 시설이 미비한 디스코클럽을 운영하는 상혼등이 빚은 참사。

이사고에서 사회는 사고대비 경험이없고 사리판단에 미숙한 10대피해자들이 질서있게대피하지못한점을 나무랄수만은없을것이다。

……발 화……　이날 불은「분위기」가 무르익은 홀 천장에서 불꽃이 튀면서 아비규환의 연옥으로 변했다。

사고순간 간신히 빠져나온 李창동군 (21·大邱中區三德洞)에 의하면 모두가 정신없이 춤추고있는데 어디선가『불이야』란는고함소리가 들렸으나 거짓말인줄알았는데 곧이어 홀내부의 전조명이꺼지면서 입구쪽 천장의 불꽃튀기는 모습이 보이는 순간부터 홀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이내 1백50여명이 우르르 출입구쪽으로 몰렸는데 출입구가 1m40㎝정도로 비좁은데다 45도경사가져 3분의1 정도가 빠져나갔을무렵 1명이 계단에 넘어지면서 잇달아 포개졌다는것。

중화상을 입고 慶北大의대부속병원에 입원중인 차근호씨 (21·大邱中區山格洞108)는『출입구가 완전히 막힌채 뒤엉킨 사람들 가운데서 허위적거리다보니 계단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불이야"에 "거짓말마"

照明비춰주자 門쪽으로 밀려가

……진화·구조……　소방차35대와 소방관 1백36명 경찰관 2백50명등이 출동, 인명구조에 나섰으나 좁은 계단에 겹쳐 넘어진 사람들이 많고 불이난 건물이 대부분 목조인데다 나무의자·카피트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어서 진화·구조에 애를 먹었다。

소방관들은 특공대를 조직, 엉켜있는 청소년들을 넘어 출입구앞까지 들어가 옷에 불이 붙은채『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구조했다。또 뒷집으로 통하는 좁은 비상철제계단을 타고 올라가 문을 부수려 했으나 안쪽으로 의자등이 가려져있어 문을 부수느라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다。

한편 현장에서 시체발굴작업을 하던 大邱소방서 西門路파출소장 김태수 소방위 (28)가 이날 과로로졸도, 東山기독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중태다。

入口에 포개진시체

……현 장……　불이난 초원의집 내부에는 의자와 탁자, 주인없는 가방, 과 옷가지등이 어지럽게널려 있었으며 건물중 70여평정도가 화재로 무너져내렸다。비상구쪽에서 불타숨진 3명은 전신이 숯덩이처럼 타버려 남녀를구별할수없을 정도였으며 출입구쪽에서는 포개진 시체가 많이 발견됐다。

사망자중 13명은 질식또는 압사한것으로밝혀져처참했던 상황을짐작케했다。

초원의집 일대는大邱의 明洞)으로 불릴만큼 술집 2백여군데가 몰려있는大邱의 유흥가중에서도 중심지로 휴일인17일밤에도 청소년들이 가득 몰려들었다。

燒死는 2명 나머지는 질식·壓死

19세소녀、婦人科 진찰권3장나와

이날 불을 처음 목격한 것은 초원의집 건물밖을 지나던 행인으로 건물벽쪽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불이야』라고 소리를 치자 현관쪽에서 기도를 보던 李基炯씨 (22)가 확인, 홀로 뛰어들어가 『불이야』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댔으나 디스코춤과 홀의 분위기에 빠져있는 손님들은『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계속 춤만췄다는것。

李씨는 손님들이 대피할 기색을 보이지않자 종업원들에게 불난사실을 알렸는데 이때는 출입구 계단쪽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였다。종업원들은 실내의 모든 조명을 켜서 불똥이 튀기는쪽으로 조명을 비추자 이때서야 손님들은 서로 먼저 대피하려고 출입구쪽으로 몰려 수라장으로 변했다。

초원의집에는 당초 4백여명이 입장,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업주측이 18일0시께 『단속반원이 온다』며 절반가량을 내보내 화재당시에는 2백여명이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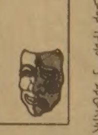
사망자들은 화상을 입어 죽은 사람은 불과 2명뿐이고 나머지는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모두 유독가스에 질식했거나 밟혀 숨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숨진 李모양 (19)의 포킷트에서는 3개병원의 산부인과진찰권이 나와 신원파악에 나섰던 경찰관들을 놀라게했는데 미성년자들의 유흥업소출입도 문제지만 청소년의 성적비행까지도엿볼수있어 큰충격을주고있는것이다。

3번 놀랐다

前청십자의료조합 전무 蔡奎哲씨

떳떳한 火傷얼굴…"마음이 더 중요"



어려서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대개는 좌절하게 마련이다。우리가 헬렌·켈러같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불행」을 극복한 그 의지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전청십자의료협동조합전무 蔡奎哲씨 (47·사진)는 보통사람의 한계를 넘은 강인한 한국인의 한 사람이다。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얼굴, 움직이지않는 오른쪽 의안, 뭉뚱그러진 손가락, 말굽같은 손등, 흔적만 남은 귀등…』본인조차도 혐오감을 느낄 얼굴이다。나병환자라도 이처럼 일그러질것 같지는 않다。

蔡씨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세번 놀란다고 한다。처음엔 흉측한 외모에 놀라고 두번째는 뭉뚱그러진 손을 내밀며 악수하자고 할때며 세번째는 자신의 외모를 조금도 패념치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에 놀란다고 한다。

蔡씨는 태어날때부터 그런것이 아니었다。키는 작았어도 남에게 뒤떨어지지않는 외모를 지니고있었다。덴마크에 유학하고 대학강단까지 섰다。

그러나 68년 한순간이 일생을 바꾸어 놓았다。자동차사고로 화상을 입었다。자그마치 30회에걸쳐 성형수술을 했다。처음 자신의 얼굴을 봤을때 죽고만싶었다。

일곱살난 아들은 밖에나가면 따돌림을 받았고 병풍바라지를하던 아내는 지난70년 저세상으로 갔다。정신이라도 먹으려 음식점에 가면 손님인데도 돈 몇십원집어주면서 몰아내기 일쑤였다。한번은 나병을 이기고 목사가 된친구가 있어 신문사에 연락했더니 달려온 사진기자는 엉뚱하게 자신의 얼굴만 찍어갔다。

그때마다 더 떳떳하게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넘쳤다。옛날보다 더 웃고 더 열심히 뛰었다。좌절하지않는 그의 꿋꿋한 모습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에서 강연요청이 들어왔다。신입사원연수회, 새마을연수원등…。1주일에 7~8회씩 수천명에게 강연을 해오고 있다。현재는 연말까지 강연일정이 짜여있을 정도로 명강사로 소문나 있다。

그의 강연은 항상 『사람은 누구나 제나름의 가치를 갖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끝을맺는다。【徐華淑기자】

韓河千사원 殉職

본사 공무국 정판부 韓河千사원 (43·서울東大門區祭基1洞·사진)이 16일하오7시40분께 야간근무도중 쓰러져 서울大병원으로 옮겼으나 17일상오5시50분 끝내 순직했다。

유가족은 미망인 李興雛씨와 在雲군, 貞順양등 1남4녀。

영결식은 19일상오 4시30분 서울大병원 영안실서 한국일보社友葬으로 거행되며 발인은 상오5시。장지는 제주도北濟州郡朝天面善屹里선영。연락처 ㉒4151 구내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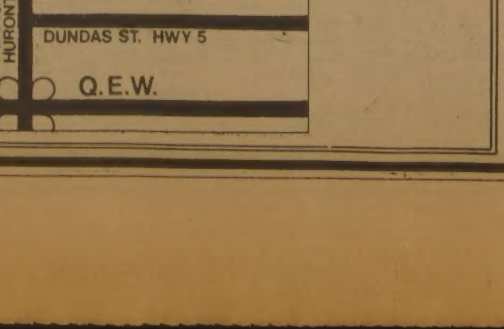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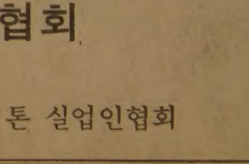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제4회 총영사배쟁탈 골프대회

□일　　시 : 1983년 5월7일(토요일) 10시정각
□장　　소 : FLAMBOROUGH HILLS GOLF CLUB ☎627-1743
(구 WINDSOR PARK GOLF CLUB)
□참가자격 : 한인골퍼　예상인원 : 60명
□참 가 비 : 35불(그린피및 스테이크디너)
□시　　상 : 총영사배(참피온)
GROSS : 1,2,3등
NET A,B,C조에 각각 1,2,3등
A조 1등 : 해밀톤 한인회장배
B조 1등 : 해밀톤·벌링톤 실업인협회장배
LADY 1,2,3등
LONGEST 상　NEAREST 상
행운상　기타부상

TORONTO : 이기훈 298-3584
HAMILTON : 이창희 639-3139
차인규 (R)336-2280, (B)639-0773
김형봉 (R)662-7662, (B)662-7409
신경순 389-0862



주최 : 해밀톤 한인골프협회
후원 : 토론토총영사관
해밀톤한인회　해밀톤·벌링톤 실업인협회

農協、決勝올라

選手기근속 大學강호 차례로制壓

白虎旗 약구

선수총원16명、투·포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그라운드에 나와 치고달려야 하는 선수기근의팀 農協이 잇달아 대학강호들을 물리치고 33회 백호기야구 결승까지 올랐다. 지난해 팀 해체위기까지 맞았던 農協은 圓光大、建國大、嶺南大에 이어 18일 서울운동장서벌어진 준결승전서 대학강호 東亞大와 격돌、언더핸드의 에이스 宋啓成이 東亞大타선을 8안타로 잠재우고 9안타를 적절히 점수에 연결、4－3으로 승리했다. 農協의 백호기대회 결승진출은 61~63년의 3連覇、65~67년의 준우승이래 처음이다.

農協의 주전투수 宋啓成은 타자의 몸쪽과 바깥쪽에 절묘한 컨트롤로 슬로우·볼을 던져 東亞大에 8안타만 허용하는 호투를보였다.

◇준결승전적

동아대	0	0	2	0	0	0	0	1	0	－3
농협	2	0	1	0	0	0	0	0	1	－4

◇준준결승전적

동아대	0	1	0	0	1	1	0	1	0	－4
한국화장품	0	0	0	0	0	0	0	1	0	－1
영남대	0	0	0	0	0	0	0	0	0	－0
농협	0	0	1	0	3	1	0	1	×	－6

▲홈런＝柳基鳳(3회·농협)

金用熙、4연속 홈런

롯데·三美공동先頭…OB·해태눌러

프로야구

MBC는 三星대파…15-8

키다리 金用熙(28)가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있다.

4월 5일 釜山에서 三美의 任昊均으로부터 첫솔로·호머를 빼앗은 롯데의 190㎝ 최장신 金用熙는 15일 釜山에서 해태의 朱東植、16일 大田에서 OB의 鮮于大注、17일 大田에서 OB의 姜哲元으로부터 연달아 홈런을 빼앗아 4게임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4개의 홈런으로 홈런·더비 선두를 달리고있다. 金用熙가 20일 光州 에서도 홈런을 날리는경우 프로야구 최다연속 홈런게임의자랑스러운 기록이 수립된다.

현재 기록은 지난해 李萬洙가 세운 3게임 연속홈런。

롯데 자이언츠는 18일金用熙의 3게임째 연속홈런을 비롯한 10안타로 大田홈구장의 OB투수 張浩淵과 姜哲元을 난타、8－3으로 이겨 三美와 함께 5승4패로 다시 공동선두에 나섰다.

三美 슈퍼스타즈는 안타수 4－9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2회말 金大鎭의 3점홈런에 힘입어 해태를 3－1로 제압、仁川홈구장에서 처음 승리했다.

MBC 靑龍은 大邱에서 신인 金貞洙의 시즌 두번째만루호머등 14안타로 三星에 15－8로 대승했다.

◇중간순위〈18일현재〉

팀	승	무	패
①롯데	5	0	4
①삼미	5	0	4
③MBC	6	0	5
④삼성	4	1	4
⑤OB	5	0	6
⑥해태	2	1	4

◇17일전적

◆인천

해태	0	0	0	0	0	1	0	0	0	－1
삼미	0	3	0	0	0	0	0	0	0	－3

▲홈런＝金大鎭

◆대전

롯데	0	0	0	0	0	2	1	3	2	－8
OB	0	0	0	1	0	0	2	0	0	－3

▲홈런＝金用熙(9회·2점·롯데)

◆대구

MBC	0	3	2	0	0	6	3	0	1	－15
삼성	1	1	3	0	0	1	2	0	0	－8

▲홈런＝金貞洙(6회·만루·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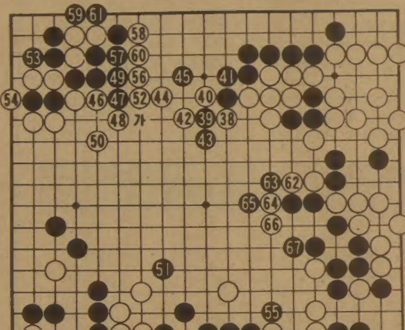
李垠周 2관왕

泰청소년테니스서

【방콕＝聯】한국 청소년테니스대표팀의 李垠周(충남여고)가 83년도 타이국제청소년테니스선수권대회서 복식에 이어 단식에서도 우승、이 대회2관왕이 됐다.

방콕의 후아·마크경기장

제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14局第8譜 138~167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勝2敗〉

黑(7段) 盧永夏〈2勝2敗〉

白38의 시점에서 때는 어느덧 하오 3시。

대국에 소요된 시간은 꼭5시간인데 이중 盧7단이 장고를 거듭하는 바람에 4시간5분이나 소비하고 있었다.

한편 徐6단은 시간을 일부러 쓰지 않으려는듯이 제꺽제꺽 두었고 더구나 우상귀에서 패를 이긴뒤부터는 거의가 노타임、1분을 넘긴수는 하나도 없었다.

전보에서 지적했듯이 白38에 대한 黑39는 白40을 각오한 승부수。

그러나 徐6단은 기세를 더한층 올리면서 白42、44로 黑세를 철저히 파괴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호전적으로 설칠필요는 없었다.

中央에 감도는 戰雲

趙南哲8단의 해설에 따르면『白42는 46쪽을 밀고나가는 것이 급손』였다고 한다.

따라서 黑은 45로 46쪽을 밀어붙여 40、42、44등을 커다랗게 포위할 태세로 최후일전을 벌여야 되었다는 것이다.

黑45는 물론 이 모양에서의 정수다.

그렇지만 白46을 당한후에 白50으로 모양을 갖추게 해서는 첫째 黑39、43으로 뻗은 뜻이 희미하여 이곳에서는 白에비하여 얻은것이 하나도 없다.

白52로써 黑「가」의 차단수를 방지한것은 당연、黑도 55로 세력을 확장하고 白56이하 黑61까지는 모두가 이렇게 될자리。

그런데 白62에서 64로해서 黑67까지 되자 중앙에 또한차례 戰雲이 감돌기 시작한다. 【一凡】

◇"만세!… 내가 王者다" 결승전에서 강호 崔旭珍을 주저앉혀 씨름천하를 통일한 순간、李萬基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만세를 불렀다. 洪顯旭·李俊熙로 대표되던 국내씨름은 약관李萬基의 등장으로 새로운 판도를 형성했다.【趙明植기자찍음】

무명 李萬基 天下 잡았다

민속씨름最終日서 의외의最強者로

強豪들제치고 決勝에 들배지기特技로 결판

무명의 약관 李萬基(20·경남대)가 초대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李萬基는 17일 장충체육관서 폐막된 제1회 천하장사 민속씨름대회 결승전에서 漢拏장사인 강호 崔旭珍(23·경상대)을 3－2로 물리치고 천하장사가 됐다.

李萬基는 준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李俊熙에 잡치기와 호미걸이로 2－1로 역전승을 거두어 결승전에 올랐고、崔旭珍은 張湧徹을 잡치기로 물리치고 결승전에진출했다.

5판3선승제로 벌어진 결승전에서 李萬基는 첫판 시작하자마자 앞무릎치기로 기습공격、한판을 먼저 따냈으나 두번째 판에서는 崔旭珍이 李萬基의 공격을 역이용、안다리 되치기로 승리、1－1타이를 이뤘다. 3번째 판에서 李萬基는 崔旭珍의 바깥다리걸기에 완전히 넘어가는듯했으나 허리의 유연성을이용、뒤집기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4번째판을 뒤집기 공격실패로 崔旭珍에 패하여 다시 2－2타이가 됐다.

李萬基는 마지막판 에서 주특기인 들배지기로 崔旭珍을 꺾어 漢拏장사 결정전서 패배를설욕하며 대망의 천하장사가됐다.

李俊熙와함께 이번 대회에 강력한 천하장사 후보로 지목됐던 洪顯旭(25·현대중공업)은 3회전서 예상외로 신예張湧徹(25·단국대)에게 2－1로 패해 이변을 일으켰다.

이번대회서 8강에 주어진 상금은 천하장사 李萬基 1천5백만원 2위 崔旭珍 1천만원 3위 李俊熙 7백50만원 4위 張湧徹 5백만원 5위 蔡泰浩 3백만원 6위 孫相柱 2백만원 7위 柳基成 1백50만원 8위 辛永泰 1백만원등이었다.

柔軟한 순발력이「힘」을 꺾어

「天下壯士」차지한 李萬基

눈물을 닦으며 끝없이울먹이는 李萬基—。천하장사 타이틀에 어울리지않는 感傷的 모습이었으나「눈물의 의미」를 그누가 헤아릴수 있을까.

약관 李萬基의등장과 洪顯旭·李俊熙·崔旭珍의몰락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대변혁이었다.

이 대회전까지 崔旭珍과 3~4차례 겨뤄 패한적이 없었던 李萬基는 16일 漢拏장사급 순위 결정전에서 崔旭珍에게 첫고배를 마셨다. 1위자리를 내준것이 못내 아쉬워 천하장사 대결을 앞두고 17일새벽 3시까지 설욕의 각오를 다졌다는것。崔旭珍의 앞무릎이 약하다는 것을 간파、결승전에서 선제공격을 펴 통쾌하게 빚을 갚았다.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李俊熙(25·부산공동어시장)가 가장 힘든 상대였읍니다』

이번 대회에 대비、지난 3월부터 黃慶洙코치와 金成律장사(경남대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맹훈련을쌓아왔다.

無鶴山 용주암에서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참선으로 정신무장을 했고 하루5시간동안 체력을 단련했다.

들배지기와 호미걸이가 주특기。허리가 유연하고 재치와 순발력이 뛰어난것이 장점이다.

馬山 無鶴국민학교때 특별활동시간에 취미로 씨름을 시작、馬山中·高를 거쳐 慶南大에 이르기까지10년째 씨름을 해왔으며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하기전까지 전국대회서 한번도 우승을 못했다. 지난 4월 晋州에서 열렸던 대통령기대회에서 3위로 입상한것이 가장 우수한 성적.

국민학교때부터 李萬基를 지도해온 黃코치는『지구력과 체중을 좀더 늘리면 완벽에 가까운 훌륭한 선수가 될수있다』고 말했다.

키1백83㎝ 체중93㎏. 채식을 즐기며 술과 담배를 모른다고.

李圭三씨(63·상업·馬山)의 5남1녀중 막내로 취미는 당구. 【安泰煥기자】

땅끝에서 오다 〈36〉

金成一 作 宋龍 畵

지금까지의 줄거리(1…35회)

1982년1월3일、리진(利進)물산주식회사동경지사의 대리 일준호는 당직근무를 하기위하여 출근한다. 사무실에는 파리지사의 텔렉스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회장 측근의 이세원부장이 중요서류를지참하고 동경으로 떠났다는 전달이었다. 준호는 그를 마중하라는 지사장의 지시를 받고 나리따공항으로 향한다.

이세원부장은 국민학교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일준호와 동창이었으며 숙명적인 라이벌이었다. 이세원에게 늘 1등을 빼앗겼던 일준호는 리진물산에 입사하여 다시 이세원을 만나게 되었지만 또한번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세원은 승진도 물론 빨랐지만 일준호가 결혼하려던 회장비서실의 문영실과 결혼하여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해외근무를 자원함으로써 동경지사에 근무하게된 일준호는 동경의 퇴폐적인 환경속에서 향락과 자학속에 살고있었다. 그는 야마우찌·스미에라는 일본인 간호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그것도 역시 그러한 자학적 유희의 하나였던 것이다.

더구나 12월24일밤 문영실이 준호의 아파트로 이상한 전화를 걸어온이후로 그는 다시 문영실에 대한 상념에 휩싸이고 있었다.

일본항공 JL404편으로 도착하게 되어있던 이세원부장은 어쩐 일인지 나리따공항에 나타나지 않았고、그의 얇팍한 서류、그리고 성경책 한권만이 들어있는 수트케이스만 도착하였다. 그것을 찾아서 차에 싣고 동경으로 돌아오던 임 준호는 그를 미행하던 검은 안경의 사나이로부터 추격을 받고、고속도로상에서 그와 격투를 벌인다.

추격자를 물리치고 무사히 중요서류를 운반한 준호는 다시 그 서류를 서울로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고 출장길에 오른다. 그리고 비행기안에서 이세원의 성경책을 들여다보던 일준호는 기이한 갈등에 잠기게된다. 성경책은 매우 낡아있었고、여러가지 색깔의 색연필、볼펜、사인펜등으로 수없이 많은 줄이 그어져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일준호는 다시 그 서류를 리비아의 트리폴리까지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게된다. 우연히 걸렸던 저1월3일의 당직근무가 그를 리비아까지 출장가도록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동경지사의 우에다·구미꼬가 프랑스로부터 들어온 이상한 텔렉스 하나를 서울본사로 릴레이 해주었다. 그 텔렉스는 프랑스의 BELLE라는 곳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었고、1월4일 12시35분에 발신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리진물산의 동경지사 앞으로 온것이었으며、수신자는 바로 일준호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텔렉스의 본문은 누구도 이해할수 없는 숫자들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내용은 다음과같은 것이었다.

AS530807 LK2226 PR0913071920 COSO605 KL42063717 PS2219 SWL

이 의문의 텔렉스를 결국 풀지못한채 밤10시40분이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온 일준호는 택시를 타고 문영실의 아파트로 향한다. 그 12월24일밤의 전화와 이세원의 실종사건이 아무래도 꺼림칙했기 때문이었다.

張吉山 〈1719〉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79)

『응、딴은 그렇군。차라리 그전에 여환 수좌가 온다면 그가 참예하는게 낫겠구먼。자아、그러면 우리는 공양미나 조금내리다。성조님이나 제석님께 바치는 미륵님께 바치는 모두 중생을 위한 것이라 석존께서두 시샘은 않으시리다』

옥여가 이렇게 말을하여 셋은 모두 웃었다。그들은 휴면중이라 모두들 출행을 쉬고있는 사당패에 내려가 오랜만에 여러 사당 거사들과 만났다。그들도 맞이 굿에는 여럿이 나와 일손을 돕기로 되었다.

오계손이 우선 송화에 들러 까막내 박서방을 통하여 장연 은율 문화 등지에 퍼진 안무당의 신딸 신아들 등께 알리도록 해두고、자신은 얼른 소매로 돌아가 풍류계의 통문(通文)을 돌렸다.

이소식은 곧바로 안협의 이정명에게 전해졌고 곧 삭녕 홍성산의 전성달에게 닿았다. 전성달은 탑고개 괴뢰배의 총대라 해서의 재인무당 패를 모두 알고 있어서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황회와 여환에게 해서의 맞이굿판에 대하여 알렸다. 원래 단풍맞이 굿이란것이 날짜가 늦어진 셈이기는 하였으나 원향의 기도가 끝나는 철을 잡아 맞이굿 하는 펑계를 대는 셈이어서 이미 날짜는 입동을 지나 대설이 다가오는 시월의 초순에 잡혀 있었다.

여환은 기왕에 동안거를 들어가기 전에 구월산에를 들러 원향을 만나려던 참이었고、그맘때에 찾아 가겠노라고 원향이 한바 아니라 옥녀에게도 약조를 해두었던터였다. 여환은 미륵도의 남은 일은 계획에게 맡겨두고 황회 전성달과 함께 시월열 초사흘 날에 구월산을 향하여 떠났다. 삼남거지 편산으로 하여 장서북로를 타고 신천 구메의 오계손네 집으로 찾아 들어갔다.

『오박수 계시오?』

전성달이 먼저 삽작 안으로 들어서며 부르자 오계손이가 뛰어 나왔다.

『어이구…이게 누구가。아니 여환스님도 오시고』

여환은 계손의 집에는처음이라 이리 저리 둘러보았다。초가 삼간이었건만 뒤뜰에는 솔가지와 갈대가 더미로쌓였고 마루도 반들거리며 윤이 났다。아낙이 없는 살림인데도 박수란또한 세심하기가 이러하여 절간의 조촐함에 비할만하였다。방안에 앉아서 여환이 황회를 소개하였더니 저희끼리 연줄을 캐고 하는 것이었다.

『응、그러고보니 우리 황 대먹이 일찍부터 진관사에서 의탁하던 재인이었소。부인도 염편서 무업을 하시고』

여환이 거들어주자 황회가 계손에게 물었다.

『전 삼좌에게 들으니 전에 월정사 사당패에 들었다던데 혹시 안성 청룡사 패나 동작진 패를 아시우?』

이를테면 그 축에서는 오계손이가 까마득한 선배격이라 빙긋 웃었다. 사실 그는 초로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글쎄요…구월산 식구 총대로 있는 임서방이 새파랗게 젊었을 적이니 …내가 알던 이들은 모두 저승패가 되었을게요』

『고달픈이나 김복만이 생각이 납니까?』

『예、모두 알지요。연평 조기철에 몽구미에서 함께 놀았던 일이 있읍니다』

『모두 제 동무들입니다』

『따져보니 한 식구들이구먼』

전성달이는 까마득한 후배뻘이 되어도 이런 수작이 오가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굿은 거의 준비가 되었나요?』

여환이 계손에게 물었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Bridal Fashion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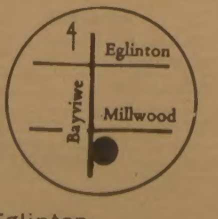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금) 아침10시~저녁 8 시

(토) 아침10시~저녁 7 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Mrs. 원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ㅓ-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컴퓨터 식자 서비스

컴퓨터 식자기를 이용하여 책을 만드실 분 문의 바랍니다. ☎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필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제(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웨이트레스 급구함.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혜숙 조성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축)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충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큐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 전화 : 922-8350

구 인

APT 룸메이트구함, 시내에서 10분.
1 Room과 리빙룸, 월200불, 즉시입주가능함.
#1410, 55 Triller Ave.(직접내방요) 전화 : 624-0098

여자 룸 메이트구함.
학생환영, 오후10시 전화.
전화 : 593-6228

지렁이 잡으실 분
좋은 농장 준비돼있음.(다운타운)
전화 : 533-7759

"거구장"
경험있는 요리사와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전화 : 742-1618.

새 장비를 갖춘 버라이어티상점(Soter)
메니저 구함.(월수입 3,000불 보장, 약간 보증금요)
전화 : 1-727-6665 (AURORA)

급구 가게맡아서 하실분, 년매상 26만불.
Stock만 지불, 렌트 700불, 조건없음.
1-(705)454-3411 Jim

Korean Village Restaurant
주방 남자헬퍼 1명, 여자헬퍼 1명구함
628 Bloor St. W. Tor. 전화 : 536-0290.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전화 : 883-1956(오전중) Mr. 리.

가정에서 재봉일 하실분구함.
(오바록과 공업파워미싱소유자로서 유경험자)
상세한 문의는 전화 : 530-1046(오후6시이후)

무비가게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영어, 한국어 능통한분.
전화 : 494-7830 낮, 925-1331 밤

샌드위치 커피숍에서 일하실 분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유경험자 원함.
직접 내방바람. (오후 3시~5시30분까지) 금~토
55 University Ave. Mrs. 한.

(1) 가정교사
(2) 미용실에서 일할 분(학생도 가능)
(3) 미용 기술자. 전화 : 532-7094(B)

입주하셔서 아이들 봐주실분 구함.
전화 : 741-9443 Mr. 박
(7시이후 연락요망)

스토어 헬퍼구함.
풀타임 (주 40시간)
전화 : 741-1465, 밤10시이후 242-2630.

〈새동네 펜팔클럽 회원모집〉
금번 본 클럽에서는 모국과 캐나다사이에 사업연결 또는 배우자관계 등등, 그리고 양자, 양부모 희망자등에 관심있으신 분에 한해서 선착순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상담 기간은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매월 2일간 봉사합니다.
•유자격 : 만30세-60세 전후
•기 간 : 월-금(오후1시~5시까지)
•전 화 : 530-1046
새동네 펜팔클럽회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533-2361

구 혼

신부 구함. - 진실하고 건강한 여성 구함 - 저는 45년생(시민권 소지자)으로 개인가게를 갖고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랍니다. 전화 : (B)273-3920, (R)273-9821 Mr.리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개인지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44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충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Nobleton)
9년 리스
전화 : 859-4554

맥스 프랜차이스 매매
오샤와 지역
전화: 1-723-8632

전망좋은 버라이어티 매매
주매상 $5,500. Asking $60,000+스탁
꼭 관심있는 분 연락바람. 전화 465-4358 Mr .김

금고를 이용하세요!!
•완전써비스 •각종모델 •100불부터 보험가입
•자세한 사항은 690-8950 David

그로서리 가게 매매, 해밀톤 지역.
Gross Income 월 $6,900. 아스킹 $4만+스탁
전화 : 1-560-6400 Mr. 정

Fruit Store(과일가게)
Plaza안에 있고 좋은 Turnover
전화 : 745-2300 Jim Taylor, Re-Max West Realty inc.

보석및 선물가게 매매
비즈네스가 잘되는 시계및 보석취급으로 오래전에 세워진 가게임. 전화 : 531-4486(낮), 635-0511(저녁)

아파트달린 도나스가게 매매, 좋은 위치
년매상 $234,00, 아스킹 $160,000
장기 Rent(13년+5년 옵션), 전화 : 782-7409 Mr. 배

이익 좋은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일요일 문닫고 2층에 살림집 있음.
자세한 문의는 전화 : 266-4866.

3개월 사용된 선반달린
20 ft. Vegetable Cooler 급매
전화 : 421-6880 Mr. 리

건물달린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Subway 옆.
자세한 문의는 537-5164 Mr. 박

일본식당 매매, 술 라이선스 있음.
장소 Laird Dr. 아스킹 $80,000, 주매상 $6,000
(B)421-6016, (R)421-2258(토·일 주말) Mr. 마즈다

매우 바쁜 신발수선가게 매매.
Asking $9만. 전화 : 826-4355.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5년리스(렌트 $1,100) 아스킹 4만+스탁(로타리오머신 및 비헤오머신 2대)
전화: 535-1916

배더스트 & 윌슨 지역 HOUSE 매매 (새한장로교회 근처)
Asking Price: $156,900 4 Bed Rm. 2층집
Rose Hersh Ltd. 전화: 633-7777 Mrs. Jacobaso

★ 융 담 ★
캐네디안산. 중거물 있음.
여러 크기, 가격 : $70
전화 : 534-7786 (저녁)

최신형 고급 카메라(신품) 매매
라이카 M4-P, 90mm 렌즈, 와인더, 메타, 케이스
Regular 가격 : $2,500, 파는 가격 : $1,740
★ 꼭 사실 분만 연락요망.
전화 : 630-5474

버라이어티스토아 이사관계로 매매
2 Bedroom 아파트와 차고 포함
12만9천불+Stock(해밀톤) 전화 : 1-389-7755 Mr. 차

(1)위치 좋은 드라이브·인 햄버거 플레이스.
주매상 $6천, 리스 1994 + 5년옵션 Rent $1,800
(2)시간짧은 스모크 & 버라이어티, Subway 입구에 위치함.
주매상 $3,500, Rent $400, Asking $3만5천.
(3)Fish & Chips Store, 5일오픈, 주매상 $2,500, Rent $725.
Asking $7만9천.
(4)여자혼자서 운영할수 있는 Pick up 드라이크리닝 런드리멧. 주매상 $1,000, 렌트 $750, Asking $2만5천.

전화 : 741-9170, Mrs. Woo, A.E. LePage Ltd.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 (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도서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랑)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master charge
★한국일보 : 533-236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횟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봄맞이대매출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환하게 새롭게 꾸며
보시지 않겠읍니까?
여러분의 상담에 성의껏
응답해 드립니다.
■ READY MADE
쎄일가격에서 15% OFF
■ STOCK BLIND
45%OFF
■ CUSTOM BLIND
30%OFF
■ CUSTOM MADE DRAPERY
종전과 같은 쎄일가격
◇각종류별로 할인해 드립니다.
다양한 신품목 다량입하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LUCKY DRAPERY
☎625-0698